

한인뉴스

2016
6

VOL. 240

haninnewsinni@gmail.com



SAMSUNG
Galaxy S7 edge

Find beauty in the dark

[FAST AUTO FOCUS* & LOW LIGHT CAMERA**]

Focus on object quickly and accurately with dual pixel technology, or take brighter and clearer pictures in low lights with f1.7 lens technology. Our latest innovation allows you to capture beauty even in the unlikely condition.



More than a phone.

*With Dual pixel technology.
**With f1.7 lens technology.

Customer service: Toll Free 0800-112-8888, Telp (021) 5699-7777 (hunting)



www.samsung.com/id



[SamsungMobileIndonesia](https://www.facebook.com/SamsungMobileIndonesia)



[@Samsung_ID](https://twitter.com/Samsung_ID)



[Samsung_ID](https://www.instagram.com/Samsung_ID)



[Samsung Indonesia](https://www.youtube.com/Samsung Indonesia)



스케일이 다른 편안함을 경험하세요

완벽한 휴식, 비즈니스와 품격이 공존하는 하늘 위 나만의 공간-
180도 완전 평면 침대형 좌석으로 내 집같은 편안함은 물론, 40여편이 넘는 영화,
다양한 프로그램과 음악CD를 제공하는 최첨단 개인형 오디오 비디오 시스템으로
또 다른 여행의 즐거움을 드립니다. 대한항공과 함께 최상의 편안함을 느껴보세요.

구간	편명	출발	도착	요일	기종
자카르타 서울	KE628	2205	0705 ⁺	매일	77W
서울 자카르타	KE627	1520	2010	매일	77W
자카르타 서울	KE626	0815	1735	월,목,일	330-200
서울 자카르타	KE625	1850	2355	수,토,일	330-200

*대한항공 발리-서울 노선 매일 운항

예약 및 기타 문의는 아래 대한항공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자카르타 지점 : 62-21-521-2180
www.koreanair.com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LOTTE SHOPPING AVENUE
New Shopping Paradigm

SHOP MORE
FESTIVAL
JAKARTA
GREAT
SALE
2016
LESS PLASTIC

Lovely SALE

3 June - 13 July 2016



롯데 상품권 최대 5%

+



라마단 더블 밸류 상품권

(사용 기간: 6월 24-25일 오후 8시 - 오후 12시 한정)

*200/500/700만루피아 이상 구매시 (6월 22일 까지)

 BNI
EXCLUSIVE FOR BNI CREDIT CARDHOLDERS



- 100만 루피아 이상 구매시 롯데상품권 추가 증정
*Min. Purchase IDR 1 Mio at LOTTE DEPT. STORE
- 톱 50 소비 100만루피아 상품권 7만 루피어로
구매할 수 있음 (6월 1일 ~ 7월 31일)

Shop Night Out

라마단올 맞이하여 6월 24~25일 2일간 12시 까지 연장 영업합니다!

- 최대 70% 할인 •
- 10% 추가 할인 + 10% 캐쉬백 •
- SWEET SURPRISE F&B 바우처 증정 •
- 아티스트 스페셜 공연 •

롯데와 함께 다양하고 특별한 이벤트를 즐기세요!

BAZAAR

UP TO
80%

• SHOES & BAGS 패션 바자

6월 1일 - 7월 10일

브랜드: 탐스, 버캔스탁, 나인웨스트,
캠퍼, 리네아, 스타카토,
스티브 메이든, 닥터 마틴

• 라마단 특집 MATTRESS 세일
6월 6일 - 26일
브랜드: 시몬스, 스프링에어, 드림랜드 등

• LINGERIE 패션 바자
6월 6일 - 7월 19일
브랜드: 소렐라, 와코루, 피에르 가르맹, 등

NEW TENANTS

Chatime
Good Tea Good Time

대만 인기있는 버블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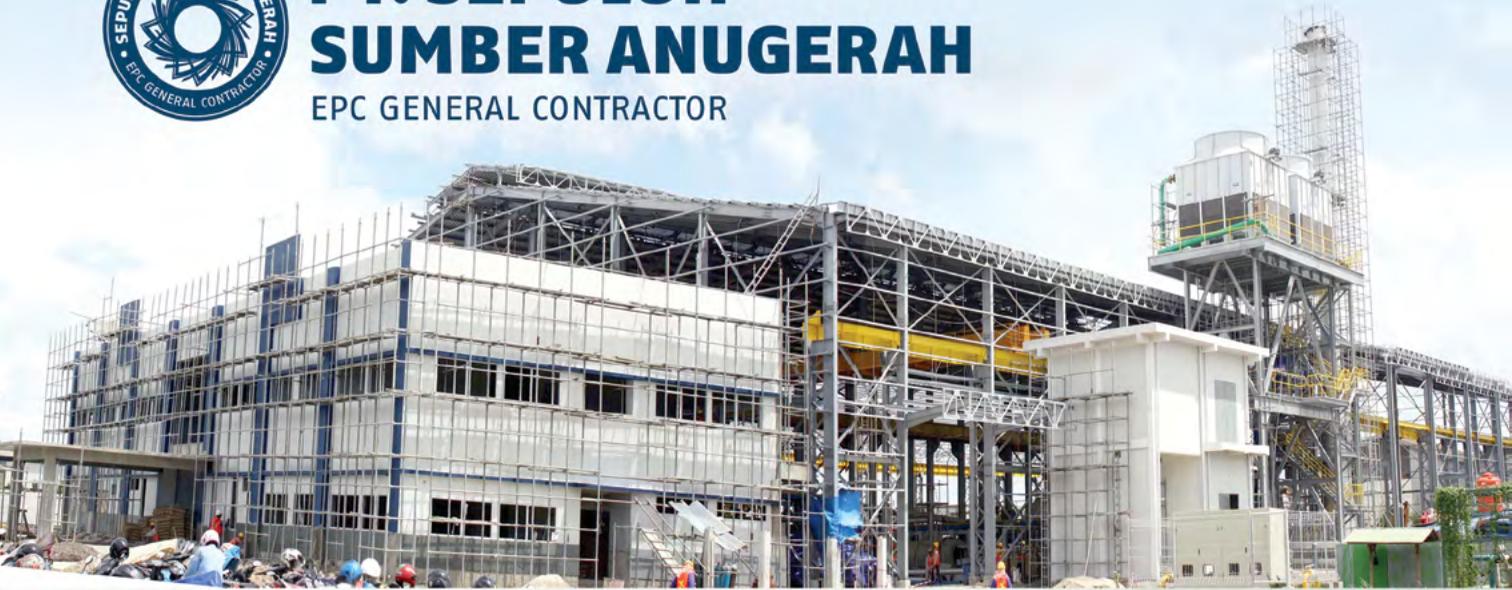
ta Wan™

퓨전 중국 요리



PT. SEPULUH SUMBER ANUGERAH

EPC GENERAL CONTRACTOR



국제기업들이 인정하는 Quality & Safety System을 구축 고객 만족을 위한 최고의 품질

PT. Sepuluh Sumber Anugerah는 25년전 인도네시아에 자리잡은 한인 종합건설 회사로서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B2, Grade 7 건설회사로 인정받았습니다.

토목, 건축, 플랜트, 발전소, 인프라 등 건설 관련 모든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Kawasan Modern Industri - Cikande에 규모 5헥타르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어 수행 프로젝트에 필요한 모든 시스템을 하도급에 맡기지 않고 직접 수행합니다.

건설 전문가가 하면 다릅니다. 25년 전통 한인 종합건설회사 PT. SSA와 함께 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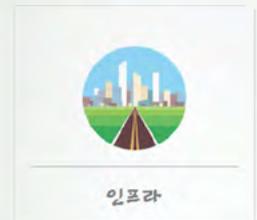
플랜트



토목 건축



발전소



인프라



고객 행복
추구



신뢰 협력



가치 창출



경쟁력
전문가

www.pt-ssa.co.id

HEAD OFFICE:
Gedung EQUITY Tower 22A, SCBD Jakarta
021-5140-28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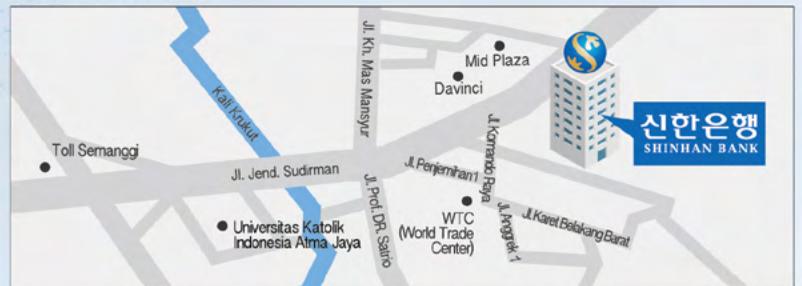
WORKSHOP:
Jl. Raya Jakarta Serang, Kawasan Modern Industri Kav. 6
0254-4029-47~49

| 해외 현지법인 자산/순이익 시중은행 1위 | **신한은행이 인도네시아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신한 인도네시아 은행이 본점을 새로운 곳으로 이전하여
 더 새롭게 고객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신한 인도네시아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 2, 30th & 31st floor, Jl. Jend Sudirman Kav 22-23, Jakarta Selatan 12920



해외 현지법인 자산/순이익 시중은행 1위

2015년 연결감사 보고서 기준
 (연결대상 해외 현지법인)



차별적 현지화를 통한 아시아금융벨트 구축

일본, 중국 등 핵심 거점을 중심으로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등
 경제성장국에 이르는 아시아 금융허브 구축

한인뉴스후원사로 초대합니다

1996년 7월 15일 창간된 한인뉴스는 한인사회의 소식과 정보통으로 한 호의 결해도 없이 발행되어 왔습니다. 2012년 세계한인회보콘테스트 대상 수상을 계기로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확보하여 한인사회의 중추적인 정론지로서의 위상을 갖추려합니다. 저희와 동참할 후원사를 초대하오니, 한인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후원문의 : 한인뉴스 편집부

전 화 : 021-521-2515

한인뉴스발행인 양영연 배상



문예총 종합예술제, 전통한지공예 작품전시(롯데 애비뉴)

디자이너 : Diki Satria Nugraha [@dadoodle]

제3회 한인문예총 종합예술제.....10

편집위원 칼럼/ 자카르타방조제 건설사업과
간척사업의 명암 <최인실>.....14

신성철칼럼/화인들의 영욕의역사.....16

이선진 전대사의 일기4화/
노무현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18

<기업탐방> PT. SSA
여동진사장과와의 인터뷰.....22

지역한인회 소식/땅그랑,반튼한인회.....24

극단적인 표현으로 소위 사이다 발언을 쏟아놓는 리더들에게 열광하는 것이 요즘 현대인들의 카타르시스인가 봅니다.

자극적인 멘트로 박탈감에 빠진 대중을 선동하는 것이 그들의 의도라면 우리는 지지하기 전에 신중해야 합니다.

다른 나라의 지난 세대 여기였을지라도 이미 경험한 바 있으므로...
히틀러 또한 무력으로 정권을 빼앗은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 대중들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면 역사의 오점이 반복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haninnewsinni@gmail.com
0818711246
편집장 홍석영

한인뉴스의 새로운 이름을 공모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본지 50쪽 안내)

조코 위도도 인니대통령의
한국국빈방문의 성과 설명회.....26

PHOTO NEWS.....27

공감, 인도네시아/‘사랑합니다’.....28

최진열의 경제를 말한다/라마단의 경제학.....29

JIKS 소식.....30

KOICA 소식.....32

인도네시아, 헤비타트 사랑의 집짓기 봉사.....33

박상훈 칼럼/
인도네시아에서 스마트하게 살기3.....34

JIS 소식.....36

5월의 경제 브리핑.....37

나의 첫 서울 방문기
<Mariko Asmara>.....40

지상갤러리/ 이숙자 화백 <김현경>.....42

신한인도네시아은행 출범/
서태원 은행장과의 인터뷰.....44

새마을 운동 세미나.....47

집중! 이 사람/ 루마인다 김영희원장.....48

100세에도 검도한다 <강희중>.....52

6월의 행복에세이 <김현숙>.....54

BAHASA/ 신용카드 청구서 <허영순>.....56

이달의 BOOK <편집부>.....57

상소문 <신두환>.....58

법률해설/ 인도네시아 민법(5) <이승민>.....60

막힘없는 기의 순환 <월간문화재사랑>.....64

생활 정보.....66

발행처 : 재인도네시아한인회 / 발행인 : 양영연 / 편집인 : 강희중 / 논설위원 : 김문환
 편집장 : 홍석영 / 편집위원 : 신돈철, 최인실, 황미리, 황윤홍 / 취재기자 : 전민규
 전 화 : (021) 521-2515, 527-2054 / 팩 스 : (021) 526-8444
 주 소 :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 이메일 : haninnewsinni@gmail.com

*** 웹사이트(<http://www.innekorean.or.id>) 에서 한인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 3회 한인 문예총 종합예술제 “응답하라 2016년 한인들의 문화 활동”



재인니 한인 스트링 오케스트라

모두가 프로였습니다

제인도네시아 문화예술총연합회 (이하 문예총, 회장 사공경) 제 3회 종합예술제가 2016년 5월 21일 시작하여 25일까지 개최되었다.

문예총 소속단체 14 단체의 전시와 공연 외에도 초청 전시, 초청공연, 아름다운 나눔 자선 바자회도 함께 펼쳐졌다.

문예총은 각 단체가 회원 15명~35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총 회원은 어림잡아 400여명 이상이다. 이번 공연에 참가한 회원은 200명 정도이며 전시에 참가한 회원은 100명이다. 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 뿐만 아니라 단체장들의 프로정신에 힘

입어 전체 회원들의 열정으로 몇 달 동안 예술제 준비를 하였다. 그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일은 홍보물 제작이었다. 미협 신돈철회장은 예술적 감각을 살린 팜플렛을 제작하였고, 공연 담당 박형동 부회장도 치밀한 준비로 빈틈없이 연출하였다.

21일 오후 4시 30분, 메인아트리움에서 한바패의 징소리로 오프닝을 알렸다. 양수려씨의 사회로 조태영 대사 내외, 양영연 한인회장, 신기엽 전 한인회장, 배상경 한인회 명예고문, 강희중 한인회 수석 부회장(문예총 고문), 자바펠리스 박재한 대표, 김우재 무궁화유통회장, 김준규 한인회 부회장, 이호덕 로얄 수마트라회장, 현상범 자총



자카르타 한인 어린이 합창단



소프라노 채영애

회장 등 많은 내빈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세계적인 패션디자이너 하리다르소노(Mr. Harry Darsono), 인도네시아 최고의 도자기 작가 위다얀또(Mr. Widayanto) 등 많은 인도네시아 인사들도 자리를 함께 해주었다.

조태영대사는 축사를 통해 “이곳 인도네시아는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단체들의 활발한 활동 덕분에 다른 나라의 한인 사회와는 다릅니다” 며 화합과 어울림의 축제를 축하해 주었다. 양영연 한인회장도 축사를 통해 행사가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것에 놀라움을 표시하며 격려해 주었다.

메인아트리움에 잘 전시되어있는 많은 작품들 사이에서 예술의 가치를 아는 참석한 많은 분들이



국악사랑



한인문예총사공경회장

자카르타 아버지 앙상블





Sasando 연주

작품과 같이 잘 어울렸다. 이와 더불어 세련된 고가구와 귀한 도자기를 선보인 자선바자회 아름다운 나눔은 3층 아트센터에서 펼쳐졌고 월화차회는 회원들이 모두 이쁜 한복 처림으로 나와 나와 전체 참석자들에게 다식과 한국의 달빛차를 제공했다.

루시플라워회의 꽃꽂이 장식은 양쪽 가장자리에서 전시장의 분위기를 한층 살려주었다. 초청전시였던 한지공예 작품은 한국적인 아름다움으로 가득했다. 특히 전시장에 들른 외국인들은 한지공예 작품을 귀하게 여기고 구입하고 싶어했다.

문협이 시화전은 사진과 시를 어우러지게 하여 시의 분위기를 한층 더 살려냈다.



색소폰 동호회

미협이 그림전은 이번 전시회의 수준을 높여 주었다. 헤리티지 코리안섹션의 사진전시회는 국립박물관 공모사진전에서 선정된 일반인들의 사진으로 시간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헤리티지 오지여행을 다녀온 자유여행가 필로메나 레이즈(Filomena Reiss)가 직접 찍은 사진 50여점이 전시되어 원시의 아름다움으로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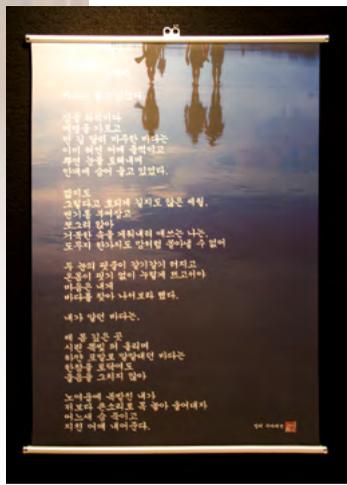
오프닝에 이어진 공연은 아이스 팰리스에서 가장 최근에 문예총에 가입한 스트링 오케스트라가 첫 시작을 알렸다. 스트링오케스트라는 현악기 연주자들이 모인 단체로 아름다운 선율의 음악을 선보였다. 하리 다르소노의 피아노 솔로 연주는 참으로 감미로운 분위기를 자아내었고 이어서 피아노 반주에 맞춰 노래를 한 채영애 아르메 여성합창 단장의 그리운 금강산 열창은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다. 어린이 합창단은 기대 이상으로 멋진 합창을 해주어서 큰 박수를 받았다.

아르메 여성합창단은 ‘뿌사카’와 ‘여행을 떠나요’를 불렀는데 관객들과 함께 부드러운 율동을 하며 좋은 분위기를 이끌어 나갔다. 자카르타의 문화단체 중 꽃이라 할 수 있는 색소폰 동호회는 ‘사랑으로’와 ‘아버지’를 연주하여 청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국악사랑은 상모를 돌리며 사물판굿을 선보여 유쾌하고 흥겨운 한마당 자리가 되었다.

극동방송 합창단은 30여명의 남녀 혼성으로 출연하여 ‘못 잊어’와 ‘How Sweet the Sound’를 감미롭고 부드럽게 불러주었다.



한바패



한인 문인협회 인도네시아지부 시화전



사단법인 한국 서예협회 인니지회

사산도는 7명이 출연하여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노래 아리랑과 고향의 봄을 연주하였는데 구슬픈 가락과 원시적인 이차차림의 조화는 눈시울이 젖을 만큼 감동적이었다. 함께 어우러진 인니 부채춤은 애절한 몸짓이었다.

김선아 소리꾼의 창, 춘향가 중 쑥대머리(춘향이 옥살이 재해석)와 강아름씨의 고전 무용은 가장 한국적인 무대로 많은 관객들이 놀랄 만한 한국의 근원적인 힘이 느껴지는 무대였다.

아버지 양상블은 ‘그대 눈 속의 바다’와 ‘향수’를 불렀는데 남성 합창단이라 역시 박진감이 있고 경쾌했다. 한바패는 장고와 북으로 상상하지 못할 만큼 빠른 장단과 소리를 만들어 내어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스런 한국적 소리와 멋을 보여주었다. 많은 관객들이 한바패의 공연을 기다리며 좋아하는데, 이번에도 반응이 좋았다.

22일(일) 공연은 이태훈씨의 사회로 시작되었다. 한바패의 판굿과 사물놀이로 시작하여 열린 브라스밴드가 아주 멋진 관악기 단체 연주를 보여주었고 색소폰 동호회도 6분의 협연이 있었다.

공연과 전시가 대규모로 어우러지는 이번 종합예술제를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모두들 프로였습니다.”

글: 문예총 기획 부회장 이수진



아르페 여성 합창단



루시 플라워회



자카르타 극동방송 합창단



자카르타 방조제 건설 사업과 간척 사업의 명암

편집위원 최인실

지난 2014년 10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책사업에 착수했다. 자카르타 북부 해안에 거대한 방조제를 건설하기로 한 것이다. 해수면 상승으로 수도 자카르타가 바다에 잠기는 것을 막기 위해, 자카르타 북부 해안에 높이 75m, 폭 13m에 길이 32km 나 되는 거대 구조물을 설치하기로 한 것이다. 투입되는 자본도 347억 달러나 된다. 이 대규모 국책 사업의 한 부분이 바로 최근 이슈가 된 자카르타 북부 해안 간척사업이다.

간척사업을 할 경우 해양생태계를 파괴 하고 침식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환경 운동가들은 이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또한 환경 오염을 가속화하거나 더 낮은 곳의 인근 다른 섬들을 바다 속으로 가라앉게 할 수도 있고 간척지에 이미 건설된 인프라를 사용함에 있어 방해를 받을 수도 있다.

인도네시아 전력공사(PLN)는 자카르타 북부해안 간척사업은 자카르타와 인근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무아라 까랑(Muara Karang), 뿌리옥(Priok) 그리고 무아라 따와르(Muara Tawar) 발전소의 전력 생산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 바 있다.

북부 자카르타 지역의 간척 사업의 역사는 1980년대에 이미 시작되었다. 빼떼 하라판 인다(PT Harapan Indah)는 판파이 뿔루잇(Pantai Pluit)과 고급 주택가인 판파이 무띠아라(Pantai Mutiara)를 간척지에 개발했다. 폼빠스 기록에 따르면 빼떼 뽀방운안 자야(PT PEMBANGUNAN JAYA)는 지난 1981년 안콜(Ancol) 북쪽에 산업단지과 레크리에이션 단지를 간척지위에 조성했다. 그로부터 10년 뒤 간척 사업이 진행된 까뵉(Kapuk)의 홍수림은 현재 판파이 인다 까뵉

(Pantai Indah Kapuk)이라 불리는 고급 주택가로 변신했다. 또한 1995년 자카르타는 산업화를 위해 마룬다(Marunda) 산업단지를 간척지 위에 조성했다.

자카르타 북부 해안 간척지에는 17개의 섬이 건설될 것이다. 이 17개의 섬은 3개 지역으로 나뉘며 서쪽 지역은 주거지와 관광지로, 중간 지역은 서비스 및 상업지역 그리고 동쪽 지역은 항만 및 창고 등의 시설이 지어질 예정이다.

환경운동가들의 문제제기는 조용하게 지속적으로 제기 되었으나 대중들의 큰 관심을 끌지는 못했다. 그러나 부패척결위원회(KPK)는 자카르타 북부해안 간척사업과 관련해 자카르타 주의회 사누시 의원을 뇌물 수수혐의로 체포하자 이 사업에 대한 관심이 촉발되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는 환경문제뿐 아니라 아후 주지사와 수시 뿌지아스뚜며 해양부 장관사이에 인허가 논쟁도 핫 이슈가 되었다.

인도네시아어 큰 사전에 따르면 “간척”이란 사용할 수 없던 지역을 토지(농지)로 사용하려는 노력이라고 나와있다. 예를 들면 늪지대를 메우는 일이 그것이다. 이 간척사업으로 인해 5,100 헥타의 토지가 늘어나며 이는 서부자바 수까부미지역보다 더 넓은 땅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새로운 땅이 생성되는 잇점이 있지만 이지역의 해양생태계는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다양한 해양 생물은 멸종하거나 사라질 것이다.

이 근방의 어부들 또한 이를 우려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 지역의 어업 종사자들은 비교적 근해에서 손쉽게 고기를 잡을 수 있었으나 방조제 건설과 간척사업으로 어류가 먼 바다로 이동해버리면 이들 역시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된다. 또 다른 문제점은 이 간척 사업으로 인해 지형과 수로가 변화시키기 때문에 홍수 피해가 더 커질 수도 있는 점이다. 그리고 이 간척사업으로 인해 이득을 보는 사람은 자카르타 시민이 아니라 이 사업에 참여하

고 있는 부동산개발회사들 뿐이라는 주장 또한 제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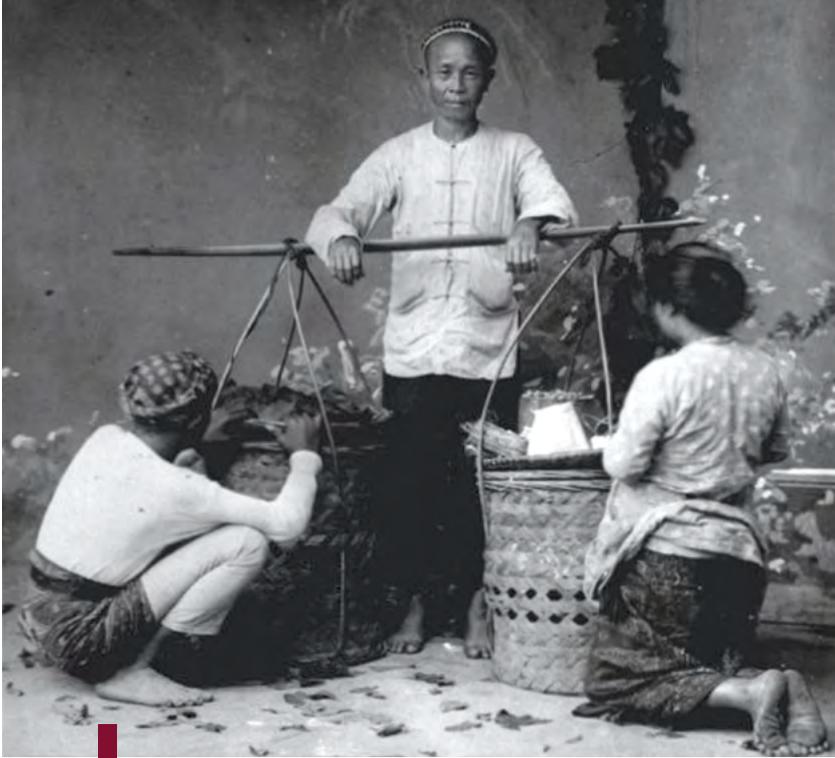
무엇보다도 자카르타 홍수 조절을 위해 간척사업이 큰 기여를 할 것이란 의견에 대해 무분별한 지하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반침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에 대한 낙관론자도 있다. 피르다우스 알리 인도네시아수자원연구소의 상임이사는 간척사업이 자카르타의 고질적 문제인 지반침하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사실 지반침하 문제가 간척사업의 부정적 영향보다 더 위협적이라고 말한다. 매년 자카르타 지역에는 지반침하가 발생한다. 지역마다 침하 정도는 다르지만 가장 심각한 곳이 북부 자카르타이다. 만약 지하수 사용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으면 앞으로 40년후 자카르타는 가라앉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카르타 간척사업은 즉시 실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찬반론자 모두 공통적으로 거론하는 문제가 바로 지반침하문제이다. 찬성론자들은 간척사업이 지반침하 문제를 극복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반대론자들은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매년 반복되는 자카르타 홍수는 비단 한가지 이유만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지하수 사용을 마구잡이로 하다보니 이에 따른 지반침하는 피할 수 없고 하천 유역의 쓰레기 제거와 하천 바닥 준설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상습 침수 지역이 생겨날 뿐 아니라 침수 지역은 점점 더 확산되는 추세이다. 지금은 간척사업에 대한 찬반론자중 누구의 의견이 옳은지 알 수 없지만 인도네시아 정부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더불어 홍수는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빨리 인식하길 바란다.

<참고> Kompas, Liputan 6



글: 신성철 데일리인도네시아 대표

안정을 되찾은 인도네시아 화인사회

인도네시아 화교·화인 2부 : “화인들의 영광의 역사”

인도네시아 전체 인구에서 화인은 4% 정도지만, 화인이 국가 전체 자본의 70% 정도를 장악하고 있다고 흔히 말한다. 그렇다면, “인도네시아 화인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상류층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인도네시아 화인 가운데 진정한 부호라고 할 만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물론 화인들의 생활수준이 원주민보다 높지만, 대부분의 화인들은 중하층에 속해 있다.

유대인이 월가를 장악하고 미국의 자본을 지배하고 있다면, 화인은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자본을 장악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화인들은 대부분 푸젠과 광둥 등 중국 동남부 지역 출신으로 식민중주국들의 중계인 역할을 하면서 쌓은 자본을 기반으로 동남아 각국에서 부호로 성장했다. 화교와 화인의 단어의 의미를 놓고 다른 의견이 있다. 최근 ‘화교’는 중국국적 소지자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반면, ‘화인’은 중국 문화와 중국인 혈통을 보존하고 있는 비(非)중국 국민을 가리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편의상 모두 ‘화인’로 통칭한다.

1619년 네덜란드가 바타비아(현 자카르타)를 점령하면서 건설과 농업에 종사하는 화인들이 대규모로 이주하기 시작했다. 이들 중에는 중국 대

륙 동남부 지역인 푸젠 지역사람이 가장 많았고 이어 광둥 지역 사람과 중국 고대 화북 지역에 살다가 단계적으로 대륙의 동남부로 이주한 명문 귀족의 자손이라고 자부하는 한족 가운데 하나인 ‘하카’(Hakka, 客家) 사람 등이 있다.

중화 경제권이 전 세계로 확대된 것은 식민 제국주의의 산물이다. 영국과 네덜란드 등 식민 제국주의자들이 가는 곳엔 중국인 끌리(kuli, 막노동자)가 따라다녔다. 세계 열강들은 새 식민지를 확보하면 현지의 자원 착취와 침략 시설 건설을 위한 막대한 노동력이 필요했다.

15세기쯤 명나라 초기 수라바야는 푸젠과 광둥의 해상들이 집결하는 거대 항구였다. 17세기 초까지 인도네시아에 화인들은 주로 바타비아, 수라바야, 반뜰 등 항구도시에 거주했고, 17세기 중반 청조가 해상무역 금지를 해제함에 따라 중국의 해외무역이 다시 부흥기를 맞는다.

18세기 초 서부갈리만탄 금광이 개발되면서 중국인 끌리들이 대거 이주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화인들이 집중적으로 몰려 사는 지역은 금광이 발견된 서부갈리만탄과 주석 광산이 개발된 수마트라 섬 서부의 방카-블리똥, 사탕수수과 담배 등 플랜테이션 농장이 개발된 수마트라 북부지역이

며, 이외에도 자카르타, 수라바야, 스마랑, 땅그랑 등 항구도시다.

화인들이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동남아로 대거 진출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중국의 인구는 1800년경 약 3억 명이었는데, 1850년쯤에는 4억명으로 인구가 폭발했다. 열강들은 중국으로부터 저렴한 인건비로 남성 인력을 쉽게 구인할 수 있었다. 자연재해로 인한 기근과 아편전쟁과 내란 등이 해외 이주를 가속화했다.

무역상과 노동자로 이주한 중국인들은 특유의 상술과 연대 및 부지런함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자리잡고 경제적 영향력을 키웠다. 인도네시아를 지배했던 네덜란드 식민정부와 중국계의 갈등은 18세기 무렵 시작됐다. 당시 인도네시아 주요 무역항이었던 바따비아로 들어오는 중국인 무역상의 수가 점점 많아지면서, 네덜란드 동인도회사가 중국 무역상에 크게 의존하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중국인의 숫자는 늘어나고 사회적 지위 또한 높아져 네덜란드인의 경제적 경쟁자로 부상했다.

바따비아 인근에는 사탕수수 농장에 대거 유입된 중국 노동력이 있었다. 1720년에 값싼 브라질 사탕수수가 유럽으로 공급되면서, 인도네시아 사탕수수 농장이 파산하자 일자리를 잃은 중국인 노동자들이 비적이 됐다. 결국 1740년 중국 이민자들이 대규모 폭동을 일으키자 식민정부는 바따비아와 인근의 중국인 거주지를 파괴하고 대규모 학살을 자행했다.

1965년 9월 30일 인도네시아공산당(PKI)은 자카르타에서 7명의 군부장성 집을 습격해 6명을 살해하며 쿠데타를 일으켰으나, 수하르토 소장이 중심이 된 우파 군부는 이 쿠데타를 빠르게 진압했다. 수하르토 소장은 수카르노 대통령을 연금하고 역쿠데타로 국가 권력을 장악한다

정권을 장악한 수하르토는 강압적인 방식의 ‘중국계 동화 정책’을 펼친다. 1967년 수하르토가 내놓은 ‘중국인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정책’에 따르면 중국어로 된 공식 문서를 폐지하고 중국의 종교 행사는 집 안에서 하는 것으로 제한했다. 중국어 학교도 폐쇄했다. 또 중국 이름을 인도네시아식으로 개명하도록 했다.

1998년 5월 수하르토 독재정권이 무너졌을 때도 화인을 표적으로 엄청난 폭력이 자행됐다. 아시아 외환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직후 실업률이 치솟고 가뭄과 산불 등 자연재해까지 겹치자 인도네시아 민심은 극도로 흥흥해졌다. 이런 대내외적인 상황에서 1998년 3월 상원적인 국민협의회(MPR)가 수하르토의 7번째 연임 결정을 발표하자 분노한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수하르토를 둘러싼 일부 군부세력들은 갈등을 봉합하고자 반화교 정서를 활용해 대규모 시위를 기획하고 부추겼다. 이 때도 화교들은 또다시 지워지지 않는 큰 상처를 입었다.

1998년 폭동은 화인자본의 대대적인 해외유출을 촉발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현상은 인도네시아 경제발전에 악영향을 미쳤다. 1998년 사태는 화인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친 것은 사실이지만 독재권력이 무너지고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화인들이 정치·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맞는다.

1999년 총선 직후 MPR에서 선출된 압두라만 와히트(일명 구스두르) 대통령은 자신이 중국계임을 인정했고, 2000년 2월 18일에는 유교를 인도네시아 합법 종교로 정식 승인하고 공포했다. 와히트 정권은 중국계인 킥키안기를 경제조정장관으로 선임했고, 2004년 인도네시아 최초 직접선거로 선출된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은 중국계 여성 마리 엘카 빵에스뚜를 무역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2012년 자카르타주 지방단체장 선거에서 중국계인 바수끼 짜하야 뿌르나마(아혹)가 조꼬 위도도(조꼬위)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해 자카르타 부지사에 당선됐고, 2014년 조꼬위 주지사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아혹이 주지사직을 승계했다.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은 화교에 대한 차별 논란이 되어 왔던 1967년 수하르토가 내놓은 ‘중국인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정책’을 대통령으로 폐지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중국의 공식 인도네시아어 명칭을 ‘찌나(Cina)’에서 띠옹호아(Tionghoa, 중화) 또는 띠옹콕(Tionggok, 중국)으로 변경했다. 이는 세계 최강자로 부상하는 중국과 화인을 끌어안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사일기 제4화

“노무현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2006.12)”



인도네시아 방문 나선 노무현 대통령

한국 정부는 매년 12월 다음 해 정상 방문 일정을 확정한다. 이에 따라 2006년도 노무현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 계획도 2005년 말 확정하고, 구체 방문 희망일자 12.3-5를 인도네시아에 통보한 시점은 2006.4 월이다. 그 때는 유도요노 대통령 (SBY)의 한국 방문 일정이 진지하게 논의되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양국 외교부는 그 해 양국 대통령의 상호 교환 방문이 실현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제3화) 이야기 한바와 같이 SBY 방한이 물 건너갔지만 8월까지 노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계획에 대한 회신이 오지 않았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솥뚜껑보고도 놀란다더니 인도네시아 회신이 늦어지는 것이 심상치 않다.

“노대통령 임기 중 인도네시아 방문은 어렵습니다”

역시 이 나라가 회신을 늦춘 이유가 있었다.

8월 중순 인도네시아 측으로부터 9월이나 10월 SBY 방한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타진해 온 것이었다. 4월, 6월 및 7월 세 차례의 한국 방문 추진이 연기되었지만 그 해 한국 방문을 실현하겠다는 인도네시아 측의 집념도 대단하다. 그래서 서울 본부에 그 가능성을 비공식 타진하였더니 담당 국장이 불멘 반응을 보였다. 그 동안 본부 간부 중에서 누구보다 동남아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을 보이던 당시 담당국장(필리핀 주재 대사)을 거쳐 현재 주

베트남 대사)마저 인도네시아가 한국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것 같다고 하면서 단 칼에 일축하였다.

나는 양국 외교부 사이 이해의 간격을 감지하였다. 이 나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에 앞서 SBY 한국 방문을 실현하겠다는 일종의 강박감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이 족자카르타 대규모 지진으로 인한 6월 방한 연기는 불가피하다고 받아들였지만 7월 방한 연기에 대하여 그렇게 강하게 반발할 줄은 몰랐다는 후문이다. 무엇보다 SBY가 한국 방문을 강하게 희망하고 있었다.

이런 이유로 인도네시아 외교부는 가급적 그 해(2006년),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방문에 앞서 SBY 방문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우리 외교부는 오히려 이를 오해하고 있었다. 이대로 두면, 양측의 오해만 깊어질 것 같아서 인도네시아 외교부 차관 면담을 긴급히 요청하였더니 바로 들어오라고 하였다.

2006. 9.5 오후 4:30. 외교부 차관에게 직선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다. “지난 4월 노무현 대통령의 방문 계획을 통보하였으나 아직 회신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최근 SBY의 10월 한국 방문 추진설이 나돌고 있다. 만약 SBY가 10월 한국을 방문한다면, 노 대통령이 한 달여 만에 인도네시아를 방문할 만한 긴급하고 중대한 사안이 없는 한 노대통령의 방문을 내년으로 연기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노대통령의 임기 중 인도네시아 방문은 사실상 어렵다. 한국 대통령은 보통 상반기에는 해외여행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참석해야 할 국제회의들, 즉 APEC, ASEAN+3, 동아시아정상회의 (EAS), 유엔 총회 및 아시아. 유럽정상회의(ASEM) 등이 모두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고, 국제회의 참석 계기를 이용하여 양자 방문 일정도 계획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내년 12월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다. 대통령은 선거의 해에 국내정치상 일정상 해외 방문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있다. 따라서 금년 12월 노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이 실현되지 않으면 노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이어 “SBY와 노대통령은 다음 주 헬싱키에서 ASEM 정상회의에 참석, 불가피하게 회의 내내 같이 자리를 해야 한다. 정상 방문 문제를 금주 중 매듭을 짓지 않으면 헬싱키에서 양국 대통령이 만나면 어색한 상황이 벌어 질 수도 있다” 고 하면서 인도네시아 측이 조기 결단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동 차관도 노련하고 유능한 외교관인 만큼 다음 주 양국 대통령의 만나서 어색할 수 있다는 점에 반응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적극적인 반응을 보인다. 그날 나와 차관은 “12월 노무현 대통령 방문, 내년 4, 5월 SBY 한국 방문” 안을 각자 상부에 보고하기로 하고 헤어졌다. 그 자리에 배석했던 한국 담당 과장이 나를 배웅하면서 SBY 방한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한국 측이 기분 나빠하지 않겠느냐고 문의한다. 그날 나의 일기는, “내부 논의 과정을 외부에 노출하지 않는 외교 행태에 비추어, 양측 간 오해 또는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중간 역할을 해야 하는 대사(외교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재삼 실감하다” 고 적고 있다.

그 다음날 차관으로부터 전화 회신이 왔다. 하산 장관에게 보고하여 노무현 대통령의 12월 인도네시아 방문을 접수하며, SBY 방한은 외교 채널을 통하여 계속 협의하자는 최종 결정을 회신해 온 것이다. 공식 회신은 공한으로 보내겠다고 하였다. 나는 상기 내용을 본부에 보고하면서 인도네시아 측 의도에 대한 오해를 우려하여 반기문 장관 앞으로 별도 전보를 보냈다. 당시 반기문 장관의 유엔 사무총장 임후보 관련 본부가 아세안의 동향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던 시기였던 만큼, 인도네시아 측이 왜 회신을 늦추었는지에 관한 이유를 상세히 써서 보냈다. 그제야 본부도 인도네시아 측 사정을 이해하는 듯하였다. 이렇게 2006년도 SBY 방한 계획은 확실하게 매듭지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방문 준비에 본격 돌입할 수 있게 되었다. 결국 SBY의 한국 방문은 그 다음해(2007년) 7월에 이루어졌다.

안이나 project를 종합. 정리하여 인도네시아 측에 먼저 제시하고, 이에 인도네시아가 희망하는 사안을 추가하여 그 자료를 기초로 대책회의를 하는 아이디어였다. 동 대책회의를 통하여 추진 가능한 항목을 선별하여 정상회담 때까지 발전시킨다는 방안이었다. 당시 인도네시아 한국 담당 국장 Yuri Thamrin (사진, 주 영국 대사 및 외교부 총국장을 거쳐 현재 주 EU 대사)은 이에 적극 찬성하였다. 4월 외교부 회의실에서 대사관-인도네시아 관계부처 연석회의가 처음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 제시된 항목들은 시간이 갈수록 수정, 보완 및 추가되고, 방문 일정이 가까울수록 진전 내용이 포함된 계획서로 대체된다. 대사관 내부 점검회의가 수시 개최되어 본부 보고되며, 주재국과의 업무 회의도 4월 이후 몇 차례 개최되었다.

참고로 4월 처음 개최된 대사관 내부 회의 때 제시된 항목, 즉 정상 회의 의제는 19 개 항목이며, 그 중, 주요 항목은 아래와 같다.

- 공동성명 발표: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을 명기
- 국방협력 강화: 방산 협력 포함
- 원자력 협력 협정



Yuri Thamrin



Taufiequrachman Ruki
(KPK 위원장)

- 인도네시아 노동자 한국 취업 문제
 - 원유 정제 사업
 - 복합화력 발전소 건설
 - 기술 지원 사업: 지식 공유, ITC 기술협력, 정보접근 센터 구축
 - 조립 협력
 - 국립 인도네시아 대학에 한국어학과 설립
 - 사증면제 협정 및 사증 발급 간소화 등
- 이 사업들은 SBY 방한 시 양국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정리한 것들이었으나 SBY 방문이 연기되면서 12월 노무현 대통령의 방문 사업으로 고스란히 넘어 왔다.

(다음 호에 계속)



대사관과 인니관계부처 회의 자료 (표지) (2)



25년간의 공사 경험이 좋은 기록으로 남아서 확대 재생산되는 건실한 기업



PT. SEPULUH SUMBER ANUGERAH

여동진 사장과와의 인터뷰

2016년 5월25일 여동진사장과와의 인터뷰를 위해 한인뉴스편집팀은 에퀴티타워 22층 PT. Sepuluh Sumber Anugerah 를 방문하였다.

1. PT. Sepuluh Sumber Anugerah는

PT. SSA 는 1992년 자카르타에서 플랜트 공사 위주 회사로 설립된 이래 만 25년간 품질 공사수행과 신용으로 꾸준히 성장하여 현재는 PERTAMINA, PGN, PLN, EXXON MOBIL, CHEVRON, JGC 등 인도네시아 및 세계적으로 우수한 발주처로부터 직접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하였습니다.

2. 한국직원 및 현지 직원 수

현재 한국직원은 20명, 현지 정규직 직원 250명 과 현장 직원 약 2,000명이 공사에 투입되어 있습니다.

3. 월간 및 연간 매출규모는

월간 매출은 약 1,000만 미불이며 연간 규모는 약 1억 미불 규모입니다.

4. 주요 공사는

토목, 건축, 전기, 플랜트 전 공중에 걸친 EPC (일괄도급) 공사입니다.

5. 회사방침이나 경영철학은

- 1) 품질공사 수행과 공기 엄수를 통한 회사 신용 유지
- 2) 수익성 있는 공사 위주의 수주 영업
- 3) 시공위주의 사업 구도에서 기술심화 사업모델을 개발하여 향후 20년간 발전 도모
- 4) 실적위주의 투명한 직원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여 사내기술개발 및 건전한 경쟁 유도
- 5) 한국인-현지 직원간 화합을 이루고 성실 시공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제발전에 미력하나마 기여한다.

6. 자사만의 특징이나 노하우가 있다면

1) 한국인의 장점인 신속성, 적극성과 완전한 현지화를 이상적으로 결합시킨 기업으로서 다양한 발주처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수주한 공사는 반드시 공기내에 완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완비하고 있으며

2) 이러한 능력을 기반으로 한국의 주요 건설기업이 인도네시아에 진출시 협업을 통해 동반 발전을 기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갖추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7. 회사내의 복지후생이나 CSR 현황

현지 법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직원들의 안전, 질병관리를 최우선 순위를 부여합니다.

CSR 로는 울산대 등 한국 대학들과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고국의 우수 인재들을 양성해왔습니다. 특히 해외의 경험이 많지 않은 한국청년들에게 세상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온 것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많은 지지가 있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례로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던 아이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는 빈따로의 Sekolah Bisa에 임원진이 찾아가 함께하는 후원을 하고있습니다.

건설쪽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인도네시아 청년들을 본사

공장에서 교육을 통해 전문자격을 취득하도록 돕기도 합니다. 본사에서 오랜 시간 일한 오피스보이가 현재는 당당히 시빌엔지니어 전공자가 되었습니다. 본사의 규모가 더욱 커지면 청년들을 넘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전문교육 학교를 세우고 싶다는 비전도 있습니다만 시작 단계입니다.



8. 회사의 자랑거리가 있다면

- 1) 높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여 직원들에게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제공하고,
- 2) 창의적인 사고에 의한 신기술개발 및 수익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시스템 경영을 통해 직원 1인당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9. 동포사회에 하고 싶은 말

우리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인력 층원이 계속 필요하므로 관심있는 한국인 전문기술인에게 취업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여가 시간에 관한 기자의 질문에 여동진사장은 여유가 있는 아침시간에 스나얀근처를 2시간정도 걸으면서 인도네시아를 새롭게 발견하는 즐거움에 빠져 있다고 말하였다.



땅그랑, 반튼 한인회 가정의달 행사 열어



다문화가정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날 큰잔치 열려... 미래장학재단 주최로 벌써 3번째 행사

5월5일 어린이날!

땅그랑 미래장학재단(회장 : 전덕천)에서는 땅그랑 찌뜨라야에서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날 큰 잔치를 열었다

이번 어린이날 행사에는 오세명 땅그랑, 반튼 한인회장을 비롯해 하연수 전임회장, 무지개공부방을 운영하는 고재천 목사와 땅그랑지역의 많은 분들이 참여해 다문화 가정 어린이를 위한 행사에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다.

이날 미래장학재단 전덕천 회장은 다문화가정 지원의 활성화를 위한 한인회의 관심과 협조에 감

사를 표했으며 향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고 오세명 땅그랑, 반튼 한인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린이날의 역사적 배경과 미래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갈 멋진 한국의 아이들로 튼튼히 자라나 주길 바란다는 희망 메시지를 전했다. 또 무지개 공부방 고재천 목사는 아이들 모두가 건강히 성장하고 성공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올해로 3번째 다문화가정 어린이날 행사를 치르는 행사에는 다문화가정 어린이 60여명과 부모님들이 참여했고 태권도시범, 줄다리기, 숟가락으로 구슬 옮기기 등 다채로운 놀이로 어린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며 특히 이날 태극기 그리기 대회를 실시해 비록 가 보지 못한 조국이지만 대한민국이 우리나라라는 의식을 고취시켜 의미있는 행사를 연출하기도 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번행사에 반동 한사모의 부채춤, 칼춤, K-POP DANCE 등 다양한 볼거리로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져 여느해와 달리 다채로운 행사를 열어 아이들의 동심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되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미래장학재단은 기존 다문화가정 후원회를 전신으로 하는 재단으로써 3년째 다문화 가정을 후원해 오고 있는 색깔있는 봉사단체이다.

약 3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 개개인은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평범한 소시민 위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고 꾸준히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는 단체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군가는 해야 할 일들을 찾아서 조용히 행하는 봉사야 말로 심지깊은 봉사일 것이다.

미래 장학재단의 힘겨운 봉사가 인도네시아에 있는 우리 다문화가정 아이들에게 건강한 성장의 주춧돌이 될 것을 확신하며 그 사명과 뜻을 이어 나가길 바라고 힘찬 박수를 보낸다.

.....

지난 8일 땅그랑, 반튼 한인회(회장:오세명)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관내 75세 이상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모시고 **어버이날** 행사를 피낭시아내 체어맨 식당에서 해외 한식당 자카르타 협의체 땅그랑지회의 후원으로 열었다.

이번 행사는 한인회에서 창립초기 2010년 부터 꾸준히 해오던 행사로 횡수로 벌써 7번째 행사로써 이날 행사에는 이세호 땅그랑,반튼 한인회 초대회장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참여해 고향의 향수를 느끼며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을 생각하는 가슴 뭉클한 행사였다.

지역의 많은 분들이 협찬하고 도와주셨지만 특히 이번행사에는 피낭시아내 식당협의회에서 자발적으로 각 업소별 한가지의 요리를 제공해 여느때와 달리 더욱 더 마음까지 풍성하고 넉넉한 행사였고 교민교회 최진영집사의 통기타연주와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레크레이션으로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올해 최고령이신 90세 김순례여사를 비롯해 9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초대받아 고향을 그리며 비록 이국땅이지만 한국의 맛과 멋을 한껏 느끼고 즐기는 자리가 되었고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작은 행사이지만 초대받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해 맑은 웃음과 장난으로 이 날 하루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에 있어 경제를 함께 발전시켜나갈 주요 파트너이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한국국민 방문 성과 기자 설명회



2014년 12월 부산에서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이어 두 번째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지난 5월 15일에서 18일까지 나흘간 한국을 방문했다.

조태영 주인도네시아 대사는 5월24일 대사관 회의실, 동포언론인들이 모인자리에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대통령의 한국국민 방문의 성과를 설명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한-인니 비즈니스 포럼을 시작으로 한국기업대표들과의 만남, 정상회담, 기자회견, 아시아 리더쉽 컨퍼런스 참석, 아주대 방문 등의 다양한 일정을 소화하였다.

아시아 리더쉽 컨퍼런스에서의 조코 위도도대통령의 기조연설은 자신의 경험담을 유머러스하고 진솔하게 풀어내어 좋은 호응을 이끌어 내었다. 아주대학을 방문하였을 때는 모인 청년들에게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한 자신의 배경을 이야기 하면서 주변에 관심을 기울이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시야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코위 대통령 국민방한을 계기로 체결한 협정에는 특별경제구역 협력 MOU, 창조산업 협력 MOU, 스포츠 협력 MOU, 특별히 바다를 축으로 사용하자는 해양 협력 MOU, 정확한 측량(지적도)을 위한 공간 정보 기술정보 공유 등을 내용으

로 한 토지 및 공간정보 MOU, 탄소의 저장고인 이탄지 복원 및 산불관리 협력 MOU 등 산림 복원 사업에도 양국이 교류하기로 협약하였다.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석탄층 메탄가스(CBM) 연구개발 협력 MOU, 에너지 기술 협력 MOU, 인도네시아 팔렘방 및 발리 가스 배관건설 MOU, 쥘레곤 철강클러스터 건설 MOA 등을 체결하였다.

곧 다가올 아시안게임을 위해 경기장으로 연결되는 경전철사업에 우리기업이 참여하기로 하였다. 이번 국민방한에는 양국 언론에 높은 관심을 받았다. 양국의 합의사항들이 좋은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후반 작업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조코위 대통령은 창조경제가 그의 공약 사업인 만큼 한국이 투자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산업화 가속에 기여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하여 유엔안보리결의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양국 두 정상은 국제테러 방지를 위한 관련 정보 교환을 제안하였다.



지진발생 대응 도상훈련



2016년 5월18일 3시 주인도네시아 대사관은 5층 회의실에서 지진발생 대응 가상 시나리오로 도상훈련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명호 총영사, 정무영 동포담당영사를 비롯한 대사관직원들과 한인회양영연 회장, KOCHAM 안광진 부회장을 비롯한 19명이 참석하여 자연재해 대책반 편성과 운영계획에 활발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명호총영사는 “인도네시아 동포

들의 신변 안전을 위해 경각심을 갖고 평소에 재난에 대비하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한인사회와의 긴밀한 공조와 각기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때이다” 라고 말했다.

이에 양영연 한인회장은 “동포의 안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한인동포에 대한 정보를 한인회에서 확보하려고 여러 방면으로 모색 중이다. 각 지역 한인회와의 연계로 정보를 공유하고 한인회 비상연락망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 말했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 부회장단 모임



참석: 양영연 한인회 회장, 강희중 수석부회장, 강호성, 손한평, 신규태, 안윤근, 엄정호, 이호덕, 장근원, 조현보, 황의상 부회장 및 최인실 사무국장.

5월 26일(목) 한인회 회의실에서 2월 17일 1차 부회장단 모임에 이어 2차 부회장단의 모임을 가졌다. 6월 14일에 열릴 정기 이사회 개최에 앞

서 재인도네시아한인회 정관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한인회 주요 활동을 설명하고 정기 이사회 전에 필요한 안건을 모아서 좀 더 화합하며 보다 나은 한인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 반영과 조율을 하기 위한 시간이었다.



사랑합니다!

촬영장소 : Jawa Timur Festival Reog Ponorogo

사이즈 : 60cm x 90cm



요즘 나는 하루에도 여러 번 연습하는 말이 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말이다.
아무리 많이 들어도 싫증나지 않고 들을 때마다 에너지가 충만해지는 소중한 약이다.
약은 남용하거나 오용하면 안 되지만 아픈 사람에게는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면서
가슴에 꽃 달아 드릴 부모님이 안 계신다는 사실이 나를 슬프게 만들었다.
아, 내가 부모님께 한번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해드리지 못했구나.
매년 가슴에 꽃을 달아드리면서 가슴 설레는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 하면 될 걸,
그걸 못하고 건강하게 오래 사시라는 영양가 없는 말들만 장황하게 늘어놓았다.

그러나 이제는 늦었다.
산소에 가서 꽃다발을 놓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른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소리 지르면 지를수록 후회가 더 진하고 깊이 될 뿐이었다.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는 법이니까.

이제부터는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가급적이면 자주, 많이 사용할 것이다.
지금 이 사진과 글을 읽으시는 한인뉴스 독자님들 °사랑합니다!°



김성월/ 수필가. 방송코디네이터
hansol0508@daum.net

라마단(Ramadhan)의 경제학

글: 최진열 부장(KEB 하나은행)

올해도 어김없이 라마단 금식월이 시작되었다. 이 기간 중 무슬림들은 일출부터 일몰까지 음식을 삼가고, 경건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유지할 것을 요구받는다. 라마단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자 업무능률 저하에 따른 생산성 하락 및 소비자 물가 상승 등에 집중된 비판적인 시각도 있지만, 음식료/요식/여행/의류/이커머스를 중심으로 한 소비 증가에 따른 내수 진작이라는 긍정적 효과에 주목하기도 한다.

라마단 기간 중 가장 두드러진 경제적 현상은 물가 상승이다. 인도네시아 통계청에서 매월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CPI)의 전월대비 상승률을 분석해 보면, 최근 10년간 라마단 해당월의 CPI 상승률은 동년도 월평균 상승률을 크게 상회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체로 연중 최고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5년의 경우 라마단이 속한 7월의 전월대비 물가 상승률은 0.93%로 월평균 상승률 0.27%의 3.5배를 기록했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라마단 기간의 물가상승률과 해당년도 연간 물가상승률의 관계 분석 결과 두 지표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 관계를 목격할 수는 없었다. 이는 라마단 기간의 물가 상승이 매년 반복되는 예측가능한 경제 현상으로서 라마단 기간 중 물가상승분의 일부가 라마단 이전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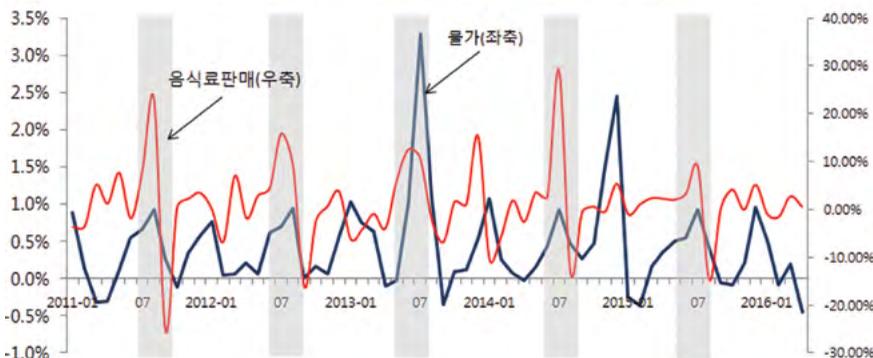
회복되는 경우가 많고, 무엇보다 인도네시아 경제 특성 상 물가상승률이 환율변동에 따른 수입물가 및 유류가격 등으로부터 보다 큰 영향을 받아 왔기 때문이다.

라마단 기간 중 물가 상승은 음식료 및 소비재를 중심으로 한 수요의 단기간 내 증가에 기인한다. 구글 인도네시아에 따르면 2015년 라마단 기간 중 검색어 증가율은 여행 30%, 의류 29%, 가전 24%, 통신서비스 19%, 스마트폰 17% 등으로 소비관심도가 전반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중앙은행(BI)의 월별소비재 판매지수를 분석해 보면, 라마단 해당월의 전월대비 소비재판매 증가율은 대부분 해당년의 월별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5년의 경우 소비재판매 증가율은 6월 4.0%에서 7월 8.6%로 상승했고, 분야별로는 음식료, 정보통신기기 판매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의 전반적인 둔화, 성탄절 등 대체 소비시즌의 부각에 따라 최근 라마단의 경제 효과가 과거에 비해 약화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노동 생산성 하락이라는 역기능에도 불구하고 라마단이 경제적으로 주목 받아왔던 것은 국가경제에서 내수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60%가 넘는 인도네시아 경제 구조 상 총수요 진작이라는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다. 미국에서 12월은 일상화된 장기간 휴가에도 불구하고, 소

비자가 가장 왕성한 구매력을 보이는 쇼핑 시즌이기도 하다. 식음료 수급의 구조적인 개선과 유통구조 개선 등을 통한 라마단 기간 중 물가상승을 최대한 억제하는 동시에 국민들의 건전한 소비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라마단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인도네시아 소비자 물가 상승률 및 음식료 판매 증가율(전월대비)



자료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및 통계청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의 교직원과 학생회, 하나 둘 마음 모아 깔리조도 빈민촌 구호물품 전달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교장 김승익)의 초·중·고 학생회와 교직원들은 지난 5월 20일 깔리조도의 빈민촌을 방문하여 옷과 가방, 이불 등 생활용품이 담긴 구호물품 30여 박스를 전달했다.

이러한 JIKS 교직원·학생들의 깔리조도 빈민촌 난민과 수재민을 위한 구호물품 모으기 활동은 해피밥퍼센터의 최원금 선교사의 권유로 시작되어 지난 4월 한 달 동안 진행된 것이다.

땅에 깔릴 듯 옷가방을 들고 오던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고사리 같은 손에서부터, 학교로 직접 날라주셨던 학부모님들의 정성어린 손길, 그리고 양손에 옷 보따리를 들고 출근했던 학교장의 손까지 학교 구성원 모두의 마음이 담겨서 비어있던 박스는 하나 둘씩 채워졌다.

이번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자카르타한국학교 고등부 학생회장 김평강군은 “올해 들어 깔리



조도의 난민들이 살 거처를 잃고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우리와 더불어 살고 있는 인도네시아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기부물품 모으기 활동을 실천하게 됐다” 고 말했다.

상상을 현실로 바꾸는 힘, ‘창의력 페스티벌’ 개최



2016년 5월 13일(금),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 교장 김승익)에서는 ‘창의력 페스티벌 행사’가 열렸다.

창의성을 주제로 한 본 행사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탐구 실험하는 체험중심의 축제로 나래홀에서의 개최식을 시작으로 창의력 경진대회와 체험부스활동으로 진행되었다.

개회식에서는 창의력에 관한 동영상 및 ‘친구사랑’이라는 주제로 5학년 친구들이 제작한 UCC 우수작품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6학년 학생들의 ‘킵타’, ‘댄스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가 학생들의 눈을 사로잡았다.

개회식에 이어 펼쳐진 창의력 경진대회는 ‘미래의 도시’라는 주제로 전체 학생들이 과학상상화, 과학글짓기, 과학만화그리기 등의 영역에 참가하였으며, 5,6학년 학생들 중 희망자는 UCC제작과 물로켓 발사 대회에 참가하여 각자의 기량을 펼쳤다.

체험부스활동은 탐구·체험활동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각 학년 군별로 마련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무지개 만들기, 나만의 셔츠 제작, 링 비행기 만들기, 화석 만들기 등의 활동에 학생들이 참여하여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JIKS, 학부모 수업료 부담 덜어준다

- 다자녀 수업료 할인제 도입 및 수업료 연체료 제도 폐지 -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이하 JIKS)는 최근 교민사회의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들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서, 2016학년도 2학기부터 다자녀의 수업료를 할인해주는 한편 그동안 시행해왔던 수업료 연체료 제도를 폐지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16년 5월 11일 개최된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재단이사회의 주요 결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번에 도입될 다자녀 수업료 할인제도에 따르면, JIKS에 두자녀 이상 취학시키고 있는 가정에 한하여 둘째는 수업료 총액의 10%, 셋째는 20%, 넷째는 50% 할인혜택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르면 두자녀를 가진 자녀는 연간 약 USD700, 세자녀 가정의 경우 연간 약 USD2,100의 감액 효과가 생긴다.

다음은 수업료 연체료 폐지 제도 관련이다. JIKS는 그동안 신학기 시작전까지 해당 학기의 수업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연체할 경우 월 1%의 연체료를 부과해왔다.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학적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다른 국제학교와 달리 비교적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한국학교의 특성상 연체료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형편이 어려운 학부모의 부담을 더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이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다자녀 수업료 할인제 및 연체료 폐지로 인해 예상되는 일부 재정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충당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3년간 건축재정 운영 및 교육부 지원금을 통해 확보된 자금으로 학교에 시급한 주요 공사가 대부분 마무리되어 향후 예산 편성에서는 시설비 관련 경비를 대폭 줄일 수 있게 되었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적립해 왔던 입학금이 어느 정도 적립되었다고 판단되어 향후에는 당해연도 예산에 포함하여 학부모들의 수업료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KOICA, 인도네시아-동티모르 남남협력 강화 모색



우리나라 대외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김영목)은 지난 5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동티모르 수도 딜리에서 한국-인도네시아-동티모르 간 남남협력 추진을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이해관계자 간 현안과 협력사항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코이카가 인니 정부의 전자정부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IT 행정역량 강화사업”의 한 부분으로 남남협력의 틀을 도입하여 동티모르 공무원의 역량강화도 함께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내 동티모르 공무원 30명을 인도네시아로 초청, 코이카 지원으로 설립된 IT교육센터

에서 전자정부 정책 및 기초 IT 교육을 진행하는데 인도네시아 사무소, 동티모르 사무소,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KOMINFO) 및 동티모르 공공사업부가 합의하고 동 내용을 골자로 삼은 협의서에 서명하였다.

이번 현지조사에는 인도네시아 정부측에서 국가사무처 Mrs. Rika Kiswardani 기술협력국장, Mr.Fahrurozi 남남협력과장, 정보통신부 산하 한-인도네시아 ICT 교육센터Mr. Nusirwan 센터장 및 외교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향후 동티모르와 동 분야 협력을 전개해 나가는 데 적극적 추진의지를 보였다. 아울러 동티모르 측에서는 공공사업부 차관 Mr. Inacio 및 Mr. Joanico 총국장, 총리실 산하 IT 담당 총국장 Mr. David 등이 협의에 참가하여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개진했다.

인도네시아 및 동티모르 사무소는 이번 남남협력 협의서 서명을 계기로 향후 인도네시아-동티모르 간 전자정부 및 IT분야 협력을 다각화할 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다.

<인사동정>

산림청 정책자문위원장에 김수일 대구외국어대 총장 임명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5월24일 국립산림과학원(서울 동대문구 위치)에서 위촉장 수여식 및 첫 회의를 가졌다.

정책자문위원회는 학계·언론계·기업·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전문가 40명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2017년까지 산림청 주요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자문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위원장에는 김수일 대구외국어대 총장이 임명됐다. 김 위원장은 부산외국어대 교수, 주 동티모르 대사 등을 역임했으며 인도네시아관광청 한국대표로도 활동 중이다.

코원 인도네시아, 헤비타트 사랑의 집짓기봉사



2015년 5월21일 토요일 오전, 코원 인도네시아 지부에서는 헤비타트 사랑의 집짓기 봉사를 통하여 여성 독거노인이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주택을 제공하였다. 코원 인도네시아는 지난 해 코원 인도네시아 주택1호에 이어서 매년 한 채씩 기증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며 뜻 깊은 사회기여 행보를 계속하였다.

특히 이번 봉사에는 코원 인도네시아 회원은 물론 7학년과 10학년생으로 구성된 코원 주니어들의 참여로 그 의미가 높아졌다. 기초공사를 마친 집은 센톨의 한 변두리 마을에서 산길로 30여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다. 마침 전날 내린 비로 사람들 발자국으로만 만들어진 좁다란 오

솔길은 흙투성이였고, 울타리에 갇힌 염소들의 변내와 숲 속 습기가 코원 회원과 주니어들의 힘들게 하였지만 누구도 불평없이 페인트 롤러와 붓을 든 손을 쉬지 않았다.

Build Home, Build Lives라는 슬로건 아래, 함께 땀을 흘린 참가자들은 마무리까지 몇가지의 공정이 남아있음을 아쉬워하며 작업을 마쳤고, 3호 주택사업에도 꼭 참여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표하였다.

가정내의 진솔한 교육이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함을 믿고, 여성의 섬세한 리더십으로 사회와 국가에 기여하고자 하는 한민족 여성의 향후활동이 더욱 주목된다.

조태영대사, 박조유 조각가에게 감사패 전달



지난 5월 23일 조태영 대사가 현재 즈빠라에서 목각 조각 작업 중인 박조유 조각가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박조유 조각가는 지난 해 헤리티지 초청 조각전시회를 개최한 후 큰 조각 작품을 대사관에 기증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 생활 필수 APP 추천 1



박상훈 (sanghoon.pak@gmail.com)
Worldwide Logistics Indonesia 법인장

요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민 여러분들도 대부분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계실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간단한 업무를 처리하기도 하고, 다양한 정보를 검색하기도 하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러가지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이 스마트폰을 활용함에 있어서 APP(Application, 응용프로그램, 이하 앱)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자면, 컴퓨터에 설치해서 사용하는 여러 프로그램과 같은 개념으로 스마트폰에 설치해 활용하는 응용프로그램을 뜻합니다. 어떠한 앱을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스마트폰의 활용도는 무한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나 애플 앱스토어에는 엄청난 종류의 앱들이 올라와 있고 많은 앱들이 신규로 등록됩니다. 이 많은 앱들 중에서 인도네시아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앱이라 판단되는 것들을 추려서 2회에 걸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교통 관련 앱 (Google Map / Waze / Lewat Mana)

자카르타를 대표하는 이미지 중에 하나가 Traffic Jam 입니다. 특히 해외생활에서 네비게이션 앱은 가장 필수적인 프로그램입니다. 모르는 곳을 갈 때, 좀 더 막히지 않는 길을 찾고자 할 때 필수적인 교통 관련 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네비게이션 앱은 Google Map 입니다. 여행이나 출장으로 전세계 어디를 가시든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앱입니다. 다만 이 Google Map이 전혀 힘을 못쓰고 있는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한국입니다. 한국에서는 네이버 지도나 기타 다른 앱을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지면 관계상 개별 앱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혹시 더 상세한 정보를 보시고 싶으신 분은 제 개인 블로그인 <https://brunch.co.kr/@sanghoonpak>에서 상세히 기록된 글들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래에 소개되는 우버나 그랩택시의 상세한 사용법도 확인 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앱은 Waze입니다. 사실 아주 대중적인 앱은 아니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제법 많은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Waze가 한국에서는 거의 사용이 안되는데 인도네시아에서 많이 사용되는 걸 보면, 인도네시아의 인터넷 사용 수준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Waze는 이스라엘에서 만들었고 사용자 참여형 네비게이션이며, 2013년도에 구글에 인수되었습니다. 이 앱의 경우 요즘 공사가 많은 인도네시아 특징 상 유턴하는 길이나 일방통행이 자주 바뀌는데 이 바뀌는 길 안내를 상당히 정확하게 알려 줍니다. 구글맵을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실시간 교통사고 상황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교통사고 안내는 Waze의 정보를 가져와서 보여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인도네시아 주요도로의 실시간 상황을 직접 CCTV로 확인할 수 있는 Lewat mana 역시 급한 길을 가야 할 경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대중교통 관련 APP (Uber / Grab / Go-Jek / Bluebird)

아침부터 기사가 출근하지 않는 날, 차량 일정이 꼬인 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날이 있습니다. 지하철도 없고 버스도 타기 어려운 인도네시아의 특징상 대부분의 경우 택시를 이용해야 합니다. 요즘은 택시를 대체하는 새로운 교통수단인 Uber와 Grab이 등장했고, 오토바이를 이용한 Go-Jek 또한 많은 기사와 이용자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버의 경우 신용카드만 등록해 두면 항상 문제가 되는 기사와의 잔돈 분쟁(?)을 하지 않아도 되고, 대부분이 네비게이션을 이용해서 가기 때문에 택시 기사들의 돌아가기 꿈수(?)에서 많이 자유롭습니다.

위 교통수단과 관련된 앱은 필요에 따라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버의 경우 차량 운행이 많은 시간에는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랩카의 경우 기사를 찾는 것이 다른 앱에 비해 어렵습니다. 이전에는 가장 불편했던 블루버드가 오히려 가격도 내리고, 서비스도 많이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물건을 보내거나, 음식을 시켜 먹을 때는 고젝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교통앱은 각자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상호보완적으로 상황에 따라 사용하시면 가격 면에서도 효율성 면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지옥으로 불리는 인도네시아의 상황에 어울리게 다양한 교통과 관련된 앱들을 먼저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직도 택시만 불러서 타고 다니시나요? 이제 우버를 불러 좀 더 편안하게 자카르타를 왕래하십시오. 또한 Go-Jek의 경우에는 물건 운송 뿐 아니라 장보기, 특히 음식배달에서는 나름 많은 발전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피자만 시켜 드시고 계시나요? 더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을 집에서 시켜 먹어 보십시오. 준비할 것은 음식 비용과 여러분 손 안에 있는 핸드폰이면 충분합니다.



JIS 재학생 졸업



(학생기자 JIS 정주은)



설렘과 기대가 오묘하게 맞닿뜨리는 때는 언제일까? 앞으로의 나날에 대한 설렘과 긴장감 때문에 심장이 가장 두근 거리는 졸업식하는 날이다. 5월 21일 토요일 자카르타 국제학교 (JIS)는 2016학년도 학생들의 졸업식을 위해 분주한 모습이었다. 학사모가 어색해 자꾸 머리를 매만지는 학생들과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한 순간이라도 담기 위해 열심히 카메라 셔터를 터뜨리는 부모님들로 인해 교내는 평상시와 다른 활기찬 분위기로 달아올라 있었다.

졸업하는 학생들의 심정을 들여보기 위해 세명의 한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해보았다.

“졸업을 하는데 가장 먼저 드는 기분은 어떤가?”

졸업생 김현중(이하 김): 고등학교를 떠나는 것 자체가 너무 좋다.”

졸업생 조서영(이하 조): 실감이 안난다. (성인이 된다는 것이) 내가 아직 학생인 것 같다.”

졸업생 최재병: 묘함. 기분이 개운한데 한편으론 뭔가 찝찝하다.

“고등학교 생활을 돌아봤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

김: 11학년, 12학년 동안 했던 아이비(IB)가 제일 생각이 난다. 심지어 나는 풀 아이비 (full IB diploma programme)을 했던 것도 아닌데 가장 생각이 난다.

조: 아무래도 학교에서 했던 것 보다는 애들(친구들)이랑 있었던 것, 놀았던 것, 특히 여행 갔던 것들 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최: 코리안 클럽 회장을 맡았을 때, 나를 성장시킬 수 있었던 새로운 기회였기 때문인 것 같다.

“졸업을 앞두고 가장 생각나는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모두 공통적으로 “부모님”이라고 답변했다.

“가장 설레면서도 긴장되는 것은 무엇인가?”

김: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과 대학을 가야된다는 것.
조: 내가 이제 대학을 간다는 것. 성인으로서 혼자 독립을 해야 하는 것이 굉장히 불안하기도 하면서 기대된다.

최: 대학교 생활이 기대되면서도 독립에 대한 걱정도 있다.

“남아있는 후배들에게 간단하게 한 마디 남기다면”

김: 공부 열심히 해라.

조: 너무 공부만 하지말고 중간에 놀면서 톡톡히 여유를 즐겨라.

최: 열심히 해라. 뭐든 열정적으로.

바쁜 학교 생활에 녹초가 되어있던 학생들의 얼굴에 이제는 웃음꽃이 피어있었다. 학생이라는 이름표가 아니라 성인이라는 책임감을 안고 첫 발걸음을 내딛는 JIS 한국인 졸업생들에게 진심어린 응원을 보낸다.



2016년 5월 월간 경제 브리핑

제공:자카르타경제신문(pagi.co.id)

경찰·BI, '이돌 피뜨리' 맞아 '위조지폐 단속' 시작

자카르타에서 적발된 위조지폐

경찰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뱅크 인도네시아(BI)는 이돌 피뜨리(Idul Fitri) 연휴를 맞아 위조지폐 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자카르타 경찰청 대변인 아위 세띠요노는 25일 “이돌 피뜨리 기간 동안 현금 사용량이 증가하며 위조지폐 사용량도 함께 증가한다. 이번 단속은 BI와 협력하여 진행한다” 고 밝혔다.

대변인은 이어 “시민들도 위조지폐를 발견하는 즉시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 위조지폐 발행망을 적발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요청했다.

이돌 피뜨리가 시작하기 전, 많은 시민이 길가에서 불법 환전소를 차린다. 아위 대변인은 “현행법상 그들을 처벌할 수 없다. 환전소 운영자가 사기, 횡령 등의 범죄에 관련되지 않는 이상 처벌이 불가하다” 고 말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남부 자카르타 이민국 '외국인 특별 감독반' 신설

남부 자카르타 시장(오른쪽 세 번째)과 외국인 특별 감독반 담당자들

남부 자카르타 이민국 사무소는 25일, 지역 내 외국 국적자를 관리하는 특별 감독반을 개설했다고 발표했다.

남부 자카르타 이민국장 쭈쭈 꼬스왈라는 “남부 자카르타에는 외국인이 약 1만 1,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범죄율 또한 증가하고 있어 특별 전담반을 개설하게 된 것” 이라고 설명했다.

쭈쭈 소장은 “169개국 무사증 입국과 아세안 경제 공동체가 온전히 시행되고 나면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 말했다.

‘외국 국적자 특별 전담반’ 은 이민법에 의거해 개설되었으며, 지방·동 사무소, 경찰, 국군, 법원, 검찰청, 마약 및 정보관리부 소속 공무원들로 구성됐다.

소장은 끼따스 오용, 온라인상 과격주의 사상을 담은 게시물 증가 등 외국인 관련 문제가 증가하고 있어 강도 높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남부 자카르타 이민 사무소는 22개 국적자가 다양한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외에도 431명의 외국 국적자가 ‘추방’ 부터 ‘여행 금지’ 까지, 다양한 행정적 처분을 받았다.

남부 자카르타 시장 프리 꾸르니아디는 “많은 외국인이 마약 관련 범죄에 관련되어 있다” 고 경고했다.

인니, 투자규제부문 32개 업종에서 외자출자 100% 인정

인도네시아 정부가 투자 네거티브리스트(DNI)의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6년 제44호’를 발표했다.

대통령령에 따라 개정된 네거티브리스트는 새로운 6개 분야 총 32개 업종에서 외자의 100% 출자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올해 투자 유치 목표로 설정한 594조 8,000억 루피아 달성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당 대통령령은 정부가 올해 2월 ‘제10차 경제정책패키지’에 발표한 정책을 법제화한 것으로, 지난 18일자로 시행됐다.

정부가 외자에 새롭게 완전 개방한 사업은 에너지자원분야가 1개 업종, 공공사업 분야가 2개 업종, 상업 분야가 4개 업종, 관광창조산업이 20개 업종, 정보·통신 분야가 1개 업종, 보건분야 4개 업종으로 총 32개 업종이다.

프랭키 시바라니 투자조정청(BKPM) 청장은 24일 기자회견에서 “냉장 창고(cold storage)

및 영화 제작(film), 의약품 원료 제조(industry farmasi) 등 부문이 외자 출자비율 100%를 인정하면서 투자가 가속화될 것”이라 기대했다. 전 규정에서 외자의 출자 비율의 상한은 냉장 창고가 33%, 영화 제작이 49%, 의약품 원료 생산이 85%였다.

프랭키 청장은 “미국 방문 시 新네거티브리스트를 현지 투자자들에게 소개했는데, 여러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 투자하고 싶다는 의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는 “방미 중 미국영화협회(MPAA) 관계자들과의 면담도 예정하고 있으며, 대만과 한국, 중동의 기업도 마찬가지로 영화 산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MPAA에는 드림웍스, 워너 브로스, 21센츄리폭스, 월트 디즈니사 등이 회원사로 가입돼 있다.

인도네시아에서의 영화 제작 사업에 관심을 가진 MPAA 회원사 가운데 월트디즈니는 몇 차례 BKPM 청사와 창조경제청(Bekraf)를 방문한 바 있다.

자카르타 미니 마트 주류 규제 “전면 철폐”

2015년 4월 16일은 인도네시아 애주가들에게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날이었다. 인도네시아 전 무역부 장관 라흐맛 고벨의 주도하에 “인도네시아 전역 미니 마트에서 주류 판매 금지”가 법률로 제정되어 적용됐기 때문이다.

라흐맛 전 장관은 당시 “인도네시아 법률상 18세 미만은 주류를 구매할 수 없지만, 청소년 음주가 문제 되는바 미니 마트에서 주류 규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4일 자카르타특별주 주지사 바수키 짜하야 뿌르나마(아후)는 “무역부가 지난해 2015년 제정한 법률 제6호 ‘미니마트 주류 판매 금지법’이 철폐 대상 법률 패키지에 포함됐다. 폐지 대상인 규제들은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국민의 소비 촉진, 산업 경쟁력 향상, 투자 극대화를 위해 선정됐다. 무역부는 2007년 제정된 주류법 제8

호가 명기하는 ‘A 클래스 주류(알코올 함유량 5% 이하)’ 판매를 재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후 주지사는 이어 “편의점에서 다시 주류 판매가 가능해질지라도 18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여전히 판매 금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년여간 실행되었던 미니 마트 주류 판매 금지법 철폐 소식에 소매업자들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반응할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판매 금지 시기 동안 판매량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맥주 생산자들은 자카르타 전역에 하루빨리 주류를 공급하길 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카르타가 주류 규제 철폐 단계를 밟아 나가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내 몇몇 지역에서는 주류 규제를 실행하는 단계에 돌입한 곳도 있다. 최근 수라바야와 파푸아는 주류 생산 및 판매를 전면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법률 제정이 논의되고 있다.

내년 인도네시아 스마트폰 시장 세계 6위 전망

인도네시아 스마트폰 시장이 무섭게 성장해 내년 일본, 영국에 이어 세계 6위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는 26일 인도네시아 시장의 스마트폰 매출이 내년 103억 6,400만 달러에 달하며 사상 처음 1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인도네시아 시장 매출은 작년 96억 7,800만 달러를 기록했으나 올해는 이보다 소폭 감소한 93억 1,200억 달러로 예상된다. 그러나 내년에는 올해보다 11%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2년 매출 29억 6,000만 달러에 불과했던 인도네시아 시장은 2014~2015년 연평균 70% 이상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나타냈다.

한편 인도 스마트폰 시장이 무섭게 성장해 내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3위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인도 시장 매출은 작년 130억 9,700만 달러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165만3,100만 달러로 예상돼 내년까지 3년 동안 매년 25%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본 시장의 스마트폰 매출은 작년 209억 400만 달러, 올해 203억 4,900만 달러, 내년 170억 8,800만 달러로 내리막길을 걸을 전망이다. 전 세계 스마트폰 매출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 시장은 2022년까지 단연 세계 1위를 지킬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2위 미국 시장은 올해 638억 800만 달러, 내년 632억 5,500만 달러 등으로 조금 축소되지만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작년 89억 달러를 기록한 한국 시장은 2022년 101억 4천700만 달러로 처음 100억 달러 고지를 돌파하며 수년간 세계 8~9위를 유지할 전망이다.

자카르타주, 2016년 9개 고가도로 공사 착공

자카르타주정부가 2018년 아시안 게임 개최를 앞두고 올해 9개 고가도로(flyover) 공사를 착공한다. 바수키 짜하야 뿌르나마 자카르타주지사는 20일 주정부청사에서 “올해 9개 고가도로를 건설할 예정이며, 모두 내년 중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9개 고가도로는 현재 뿌르나마 히자우 지역에 건설된 것과 같은 형태로 건설될 것” 이라고 밝히고 “이미 건물들이 들어선 도로를 확장하기에는 걸림돌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고가도로를 설치하는 것이 해결책이다. 고가도로에서는 교통신호에 구애 받지 않고 차량이 달릴 수 있다” 고 설명했다.

자카르타주정부는 스망기, 빈파로, 찌삐낭, 끄본즈룩 등에 고가도로를 설치할 예정이다. 스망기 고가도로는 그로골~스나얀 방면과 수디르만~짜왕 방면을 통행하는 차량을 수용할 예정으로, 완공 후 개통되면 스망기 인근 교통체증을 30%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수카르노-하

따 국제공항에서 그로골 방면 도로의 교통상황도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스망기 고가도로 공사에는 총 3천 600억 루피아(약 2,740만 달러)가 투입되며, 이는 개발사 미뜨라 뽀짜 뿌르사다(PT. Mitra Panca Persada)가 전액 부담하며, 공사는 국영 건설 위자야 까르야(PT Wijaya Karya)가 맡는다. 미뜨라 뽀짜 뿌르사다는 일본 개발사 모리 빌딩(Mori Building)의 자회사다.





나의 첫 서울방문기

Mariko Asmara (JAC Recruitment 대표)

가까운 한국을 처음으로 방문하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그 이유는 한국은 웬지 가볍게 들러서는 안될 것 같아서였다.

내가 한국인을 처음 접한건 80년대 일본 유학시절이다. 지금도 그렇지만 한국인 친구들은 여전히 바빴고 매사에 의욕적이었으며 뛰어난 어학 실력과 취미 활동을 비롯한 재주가 많은 친구들이었다 (특히 노래). 마침 코트라의 '인도네시아 진출 스타트업 파트너링 상담회 (5.18- 20)' 에 초대받아 그 동안 버르던 한국 방문이 이루어졌다. 내 기대에 어긋나지 않았던 짧은 3일간의 기억을 되짚어 본다.

늦은 밤 출국임에도 기내는 빈자리가 없었다. 주 20여편이 넘는 자카르타-인천 항공편이 항상 풀이라고 들었다. 한국의 기운이 느껴지는 기내에서 제공된 야식 원조 불고기가 나를 만족시켰다. 기대에 들떠 잠을 못 이루고 기내 창을 통해 먼동이 트는 광경을 보며 이른 새벽에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기분 좋은 상쾌한 공기와 주변의 활기찬 모습에 피로도 싹 사라졌다. 말로만 듣던 인천공항의 규모에 압도 됐다. 내가 수년간 다녀본 어느 공항보다 현대식으로 잘 정리돼 있었다.

호텔 직행 리무진 버스는 안내시간에 맞추어 정확히 도착했다. 비즈니스석을 갖춘 버스에서 터지는 IT강국의 WIFI 스피드는 함께한 일행 모두를 놀라게 했다. 시내의 선명한 도로 표시와 고층아파트, 유유히 흐르는 도시의 강과 바다 그리고 줄을 잘 맞추어 도열한 가로수와 넘치는 한국산 자동차의 물결 등 서구와 타 아시아 국가에서 볼 수 없는 활기찬 아침 도시 풍경이다. 그새 우리는 강남에 위치한 호텔에 도착하였다.

이번 코트라 주최 세미나는 인도네시아로의 진출을 원하는 벤처기업인들에게 인니 현지 상황을 생생히 전해주고 조언 상담을 해주는 게 주요 목적이다. 무려 100여 프로젝트와 회사들이 소개되고 아침 8시부터 개별 상담이 진행되는 밤 11시까지 숨 돌릴 틈도 없는 빡빡한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세미나를 준비한 코트라 직원들은 알미울 정도로 빈틈 없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여 나를 놀라게 했다.

인니(개도국) 진출을 희망하는 이 벤처인들은 이미 철저한 사전 조사를 끝낸 듯했다. 진출지역, 시장상황, 경쟁업체 그리고 관련 법규에 이르기까지 도대체 어디서 이런 정확한 정보들을 수집하였는지 감탄스러웠다. 수준 높은 질의 응답과 밤 늦게



공항 리무진버스 정류장



코트라주최 벤처&창업지원세미나(5.18-20)

까지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도 이들의 진지함과 성실함에 전혀 피곤하지 않았다. 아마 코트라측이 현지 진출 대상업체 선정에 많은 공을 들인 듯하다.

이번 상담에서 재미난 사실은 한국인들은 사업 진행에 있어 첫째 과연 내상품이 현지에서 성공리에 접목할 기회가 있을지 여부였다. 기회만 주어진다면 인니 어디든 뛰어 들어갈 자세를 갖추고 있었다. 그래서 자카르타를 비롯한 대도시가 아닌 이리안자야, 칼리만탄 그리고 띠모르에 이르기까지 많은 질문을 하였으며 무엇보다 오지를 전혀 겁내지 않았다(병역의무로 군인 정신이 충만해서인가?). 이에 비해 중국인들은 우선 돈이 될지 여부에, 그리고 일본인들은 근로조건과 안전 확보에 최우선 순위가 주어진다.

사흘의 짧은 일정에 왜 이렇게 한국에 정이 드는지.. 공적 방문이기에 말로만 듣던 인사동, 이태원, 전통시장, 고궁도 가보지 못하고, 무엇보다 세계 최고 수준인 성형 상담 견적을 못 받아 아쉬웠다.

또 한국인들의 일상 생활이 너무 보고싶기도 했다. 함께 한 일행 중 한명은 귀국하자마자 이번 르바란 휴가를 이용하여 전가족의 한국 방문을 결정했다고 연락해왔다. 한국을 방문하면 누구나 한류팬이 되는모양이다.

최근 20여년 인니내 한인커뮤니티의 매직 성장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인니인들에게 부족한 리더쉽, 기업가정신, 투지 그리고 위기 대응능력을 잘 갖추고 있는 한국과 상호 부족한 점을 보완해가며 이지역에서 좋은 파트너로 동반 성장을 기대해 본다.

잠시 상념에 잠긴 사이 리무진은 어느덧 공항에 도착했다. 또 놀라운 광경은 출국수속에 무려 1시간 이상이 걸렸다. 이민국 직원의 업무 처리가 늦은게 아니고 수백명에 이르는 관광객들로 이미 출국장은 만원이다. 이곳 저곳에 한국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노력이 눈에 띄었다. 이민국 직원은 오래기다린 나에게 미소를 띠며 바하사로 인사말을 해주었다. 출국장 홀에서는 임금님의 외출 전통 행렬이 이어졌고 외국인들을 위한 각종 실연행사들이 마련되어 전혀 지루하지 않았다. 귀국 항공편에 탑승하니 그간 긴장이 풀리고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온다.

아직도 서울에서 본 장면 하나하나가 또렷이 떠오른다. 안녕 꼬레아... 삼빠이 줌빠 라기!



공항, 궁중의식재현

Mariko Asmara 씨는 ..

UI 졸업 후 국비장학생으로 일본 교토대 유학.
2002년 외투기업 원스톱 총괄지원 컨설팅
'JAC Recruitment (총직원 220명)' 설립 운영중.
투자에 관한 기고,강연과 경영자협회 및 주요 사회단체 멤버.
2015년 EY 선정 '인니 베스트 여성기업인 5인' 에 뽑힘.



외국인전용택시



1931kcal

칼로리를 표시한 메뉴(처음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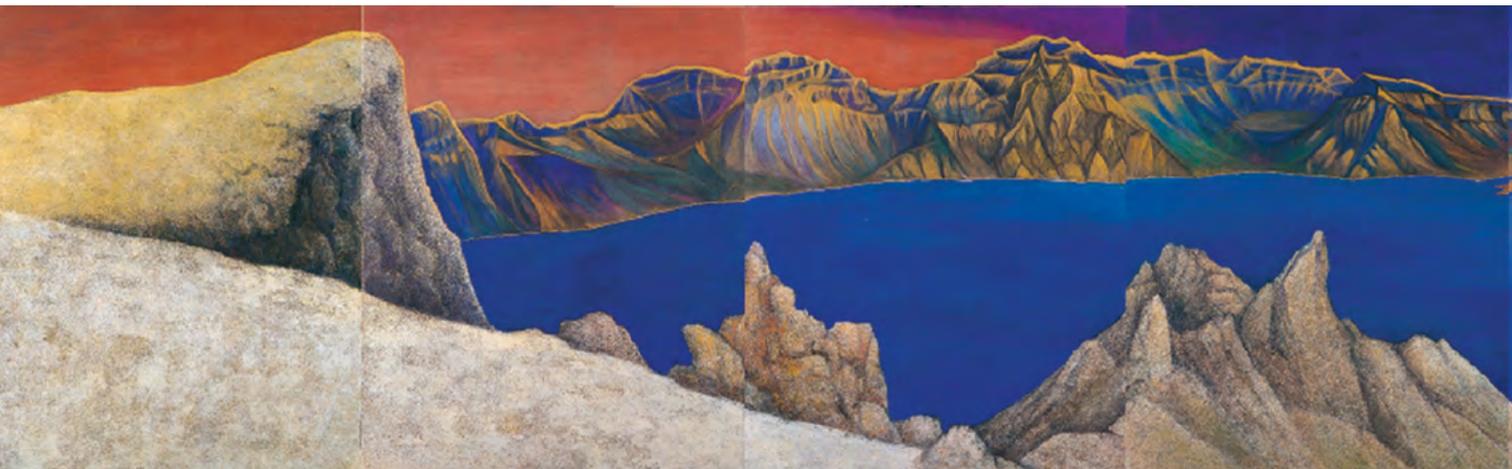
보리밭에서 백두산까지 이숙자화백



청맥-노란 유채꽃 2012

7월 안에 한국을 가시는 분이 계시다면 권해드리고 싶은 전시회가 있습니다. 과천현대미술관에서 7월 17일까지 열리는 <초록빛 환영-이숙자 전>입니다. 평생을 채색화의 정통성에 대한 강한 신념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한국화 분야에 헌신해온 한국화가 지향 이숙자(芝香 李淑子, 1942~)의 대규모 회고전입니다. 전통 채색화의 맥을 잇고 있는 이숙자 화백의 작품세계를 반영하는 이 전시회는 4점의 푸른 보리밭으로 시작되며 약 50여 점의 작품들과 드로잉, 자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화백의 첫 번째 개인전 작품들과 근대 한국 채색화의 맥을 이었던 천경자(1924~2015), 김기창(1913~2001), 박생광(1904~1985) 등 그녀의 대표적인 스승들에게 영향을 받은 작품들, 국전에 출품했던 작품들, 그리고 그녀의 대표작인 ‘보리밭’ 시리즈와 여성 누드를 소재로 하는 ‘이브’의 연작, ‘백두산’ 등 시대에 따른 작품의 변화를 한 자리에서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귀한 전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처음으로 진행되는 채색화 작가의 개인전이라는 데에도 큰 의의가 있습니다.



으로 보는 왜곡된 인식으로 인해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었습니다. 전통 회화부분에서 진채기법에 대한 거부감은 수묵담채화로, 염료 이용으로, 또는 채색을 버리는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이숙자 화백은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일관되게 채색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채색화가 일본화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원래 뿌리는 우리가 가르쳐 준 것이다. 일본화의 생성은 한국화의 채색화인 고구려, 백제의 그것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재미있게도 전시관 한쪽에 이숙자 화백의 작업실이 있습니다. 작가의 작업실을 그대로 옮겨놓은 공간 안에서 일주일에 5일은 화백이 그림을 그리는데, 4개월의 긴 전시 기간 동안조차 작업을 놓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 특별한 공간이 만들어 졌다고 합니다. 작고 여린 몸, 70대라는 나이를 무색하게 하는 화백의 열정을 가까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화백의 작업은 대작이 주류를 이루는데, 교수라는 직책뿐만 아니라, 대가족 속에서 해야만 하는



많은 역할들 속에서 화가로서의 삶을 잃어버릴까 걱정이 되었던 이 화백은 화가의 삶을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큰 작품 속에 자신을 아주 묶어버려야겠다고 결심하고 대작을 그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14.5m, 9m, 150호 등 사이즈가 큰 작품을 완성하며 몸은 온전하셨을지,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셨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몸으로 하는 일이니 당연한 것이라고 담담히 이야기해주는 화백은 “99프로는 노력이다. 천재성 이란 것도 노력 없인 감동이 전달되지 않는 것”이라며 신조를 강조하셨습니다.

50여 년 동안 붓을 들고 한국화(韓國畫)가 ‘한국 미술의 중심’에 서도록 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화가로서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이 화백의 전시는 보는 내내 벽찬 감동을 주었습니다.

지향(芝香) 이숙자 화백의 반세기 화업을 되돌아보는 이 전시를 통해서 문인적 취향의 수묵화와는 또 다른 한국화의 다채로운 울림에 공감하며 <한국성>에 대한 풍요로운 시각을 경험하시길 기대합니다.

글:김현경 (한인미협회원)



신한인도네시아 은행 출범

그룹사 차원의 고객우대제도로 한인동포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Bank Metro Express (BME)를 인수한 신한은행은 ‘신한인도네시아은행’ (PT. Bank Shinhan Indonesia) 로 5월16일 공식 출범하였다. 한인뉴스 편집팀은 신한은행 서태원 은행장과의 인터뷰로 그간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신한은행 서태원 은행장과의 인터뷰

1. 신한은행 소개 (역사 및 규모/ 해외진출 현황)

신한은행의 비전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사랑 받는 1등 은행”이며, 신한은행은 1982년 설립된 이래 한국 최초로 ATM, 무인점포 및 인터넷 뱅킹을 도입하는 등 한국 금융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2006년 조흥은행과의 성공적인 통합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2015년말 기준 총자산 2,430억불의 대형 우량은행으로 발돋움해 왔다.

신한은행은 안정적인 사업 구조와 브랜드 가치에 힘입어 작년 한 해 순이익 12.7억불을 달성하여 순이익 측면에서 한국 1위에 올랐으며, 자산건전성 (NPL 0.8%) 측면에서도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2011년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 푸어스 (S&P)가 신한은행의 신용등급을 “A-”에서 “A”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현재 해외 3대 주요 신용평가사 [무디스 (Moody’s) “Aa3,” 피치 (Fitch) “A”] 모두로부터 한국 최고 수준의 신용등급을 획득하는 성과를 얻었고, 더불어, 당행은 The Banker紙, 「2015 세계 500

대 금융브랜드」 평가에서 한국 1위 (4년 연속), 세계 36위 (2014년 43위)에 선정되었으며, 다보스 포럼에서는 국내 금융사로서는 최초로 「글로벌 지속가능 경영 100대 기업」 (18위)에 4년 연속 편입되었다.

글로벌에서는 19개국 141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2. 인도네시아 진출 과정 스토리

신한은행의 인도네시아 진출은, 법인/지점 설립 후 현지영업을 하다 추가 인수 합병 등을 통해 규모를 키우는 방식이 아닌, 지점이나 대표사무소 없이 진출하여 현지은행 2개를 인수하는 전례가 없는 독특한 방식으로 진행했다.

신한은행은 인도네시아 내 주요 핵심축인 자카르타에 있는 (Bank Metro Express 이하 BME)와 수라바야에 있는 (Centratama Nasional Bank 이하 CNB)를 기반으로 두 개의 은행을 인수하여, 현지 금융 관행 습득과 경험을 통해 증가 및 추가 확장하는 방식으로 성장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오래전부터 인도네시아의 풍부한 자

원, 인력 및 성장성을 고려, 진출을 준비해 왔다. 지난 2012년 12월에는 BME은행 인수 CSPA를 체결하였다. 이후 인수 과정상 제반 어려움도 있었으나, 인도네시아 정책당국의 은행산업 중장기 발전 계획에 부응하면서 추가은행 인수로 돌파구를 마련하였고, 금융당국에 신한은행 진출의 진정성을 각인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다.

그 결과 2015년 4월 BME은행 지분인수 승인을 필두로, 같은 해 11월 BME은행 경영권 확보 및 증가, 12월 CNB은행 지분 75%를 인수하게 되었다. 실질적인 업무를 시작한 지난 1년 만에 두 개 은행 인수 합병 작업을 마치고 5월 16일 신한 인도네시아 은행 법인을 공식 출범하게 되었다. 이번 인수과정에서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는 것을 이르는 한자성어처럼 하늘이 함께 도와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3. 인도네시아 진출계기 및 전략

신한은행은 창립 당시부터 차별성과 혁신, 고객 중심,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등을 모토로 일관되게 경영에 임해왔으며, 약 30년에 불과한 은행 역사에도 불구하고 IMF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겪으면서도 현재와 같이 한국 은행산업을 대표하는 리딩뱅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일관된 경영철학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당행 및 금융지주사가 고객에게 제공해왔던 금융 노하우, 상품 및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외진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진출국가의 경제 발전을 위한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특히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많은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은 현재 19개 국가에 141개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 베트남,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를 핵심시장으로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당행 글로벌사업의 전략 핵심시장으로서 5년전부터 진입 준비중이었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최대의 경제 강국으로 풍부한 인구 및 자원을 바탕으로 한 성장잠재력 및 안정성을 갖춘 경제대국으로 G20 가입에 따른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 맥킨지보고서에 따르면 유로위기에도 불구하고,

2030년에는 세계 7대 강국으로 도약할 것으로 예상하는 등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인도네시아 관계에서도 2007년 Korea-ASEAN FTA 발효 이후 양국간 교역 규모가 2007년 108억불에서 2014년 235억불로 늘어나는 등 한·인니 교역 및 투자 규모가 최근 20년간 크게 증가하여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6대 무역 상대국이 되었으며, 향후에도 양국간 경제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양국간의 경제 협력 증대와 아시아적 문화적 공감대 속에서 2014년말 현재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계 기업 수는 약 1,840개로, 포스코, 롯데, 한국타이어 등 한국계 기업들의 투자규모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향후 한국계 기업들의 진출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로 많은 고객들이 언제 신한은행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는지를 물어오고 있으며, 당행은 인도네시아 진출을 통해 당행 거대고객의 불편 해소와 금융지원을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현지에 접목시켜서 현지 고객과, 기업 및 인도네시아 금융 및 경제발전에 대해 공헌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투자 및 노력할 것이다.

단기에는 기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초기 인니 SME, 한국계 지상사 영업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며, 중기적으로 인프라, 프로젝트 금융 관련 사전 인력 양성 통한 기업금융, 인프라 및 프로젝트 금융을 확대하려고 한다.



(좌로부터 강희중 한인회 수석부회장, 조용범 신한은행장, 서태원 신한인도네시아 은행장)

한국 모행은 중장기적으로 “Local Best, Asia Top 10은행” 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에서도 고객기반 외연 확대와 추가 고객군 발굴, 신상품 및 新서비스 도입 통한 현지 고객, 기업, 주주, 임직원에 기여하면서 함께 성장하고 인도네시아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은행이 되고자 한다

4. 신한은행의 강점(타 은행과 비교)

신한은행은 기업, 리테일, PB, 프로젝트 등 IB 분야 모든 은행업무를 영위하고 있으며, SME 분야에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당행은 창립 이래 지난 30년간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중소기업(SME) 신용여신 정책을 선도해 왔는데, 기업금융 강점은 다양한 맞춤형 상품과 거래기업의 동반자적 상생을 추구하며 Business Cycle에 맞춰 제공하는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서비스」 라고 할 수 있다.

인수은행의 현재 주요 고객이 SME로 구성되어 있어, 이러한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지원과 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고객의 성장을 통한 은행의 성장을 도모코자 한다.

그 동안 축적하여온 기업금융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 수요가 충분하고 향후 인니 경제 성장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지 중소 및 중견기업(SME)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인니 경제발전에 기여코자 한다.

5. 인도네시아 예상 여신 규모 및 지점 계획

현재 시작인 단계에서 여신규모를 예상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 생각되며, 인수 은행의 채널관련해서 얘기하면, 60개 채널 중 25개는 자카르타와 수라바야를 제외한 자바섬에 분포하고 있으며, 술라웨시 2개, 롬복 1개, 발리 1개 있다.

우선 자카르타와 수라바야에 중복 점포 및 밀집 점포 등을 재배치하여, 채널 효율성을 재고할 예정이며, 향후 고객에 대한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재의 자카르타와 수라바야 지역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내 추가 주요 도시 및 공단지역에 점포 개설을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신한은행의 강점인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

킹 등을 통해 중소형은행의 채널 부족 부분을 보완할 것이다.

6. 인도네시아 한국 업체나 교민에 대한 특화된 서비스

신한 인도네시아은행은 기업과 개인고객에 대한 여신, 수신, 외환, 기타 부수 업무 등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계 기업과 한인을 위해 본점 영업부에 코리안데스크를 운영 중이다.

2015년에 현지금융 감독 당국으로부터 BME 은행 인가획득과 지분인수를 진행 후 2016년 4월 법인명칭 변경과 함께 새로운 전산시스템을 오픈하였다.

추가은행(CNB 은행) 합병을 진행 중인 바, 한인 동포 및 한국계 기업들의 의견과 금융 수요를 충분히 경청해서 한인 기업과 한인 동포들이 계신 입지에 새로운 채널 신규 및 이전을 준비 중에 있다. 두 은행 통합 이후 차별화된 신상품과 서비스를 출시하고자 준비 중이다. 특히, 관계사인 신한카드 및 신한금융투자 등이 이미 진출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진행 중에 있어서 인도네시아에서도 그룹사 차원의 고객우대 제도 등 차별화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로 고객분들께 다가가고자 한다.

7. 인도네시아 한인동포에게 하고 싶은 말

신한은행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하기 위해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있었으며, 현지 및 국내 금융 당국, 정부 관계자분들, 한국 동포 및 기업들의 지원과 협조가 컸다. 모든 분께 재차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추가은행 합병 및 PMI 과정상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더욱 많은 관심과 협조 그리고 지원을 당부드린다.

신한은행은 인도네시아 진출 전부터 KOICA와 함께 반등 자립 재활사업 등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인도네시아 지역사회와 기업, 고객, 한인 동포, 및 직원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되고자 하며, 새롭고 신선한 변화의 바람을 통해 인도네시아 기업과 고객, 한인 동포 및 기업, 지역사회 모두에게 사랑받는 은행이 되고자 한다.

새마을 운동 세미나에 헤리티지 코리아인 섹션 참가



지난 5월 3일에 족자카르타 가자마다대학(UGM) 부설 프리삭띠-새마을운동연구소(PSTS: Pusat Studi Trisakti-Saemaul Undong)가 인도네시아 국제한국학회(INAKOS)와 공동으로 “인도네시아 농촌개발에 새마을운동 적용 가능성”을 주제로 한 국제세미나가 열렸다. 한국 측 내방 인사 15명과 인도네시아 측 발표자 10명 등 주최 측 총계로 350명의 청중이 세미나를 경청하였다.

이수진 헤리티지 코리아인 섹션 회장이 참가하여 헤리티지 코리아인 섹션의 활동 보고를 하고, 이를 통해서 한국인의 인도네시아 문화 이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코리아인 섹션의 활동 사례를 소개하

여 청중으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장준영 교수(한국외대)의 “미얀마의 새마을운동과 국가발전계획” 과 장영민 박사(서울대)의 “웅아란(Ungaran) 지역의 농촌 상황과 젊은이들의 역할”, 한국 투자회사인 창신인도네시아(PT. ChangShin Reksa Jaya)의 노조대표단이 중부 자바 가룣(Garut)지역의 새마을운동 성공사례를 발표하였다. 인도네시아 측에서는 4명의 교수가 발표에 참가하고, 족자카르타 인근의 새마을운동 활동지역(3개소)의 사례 발표가 있었다.

이번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 양승윤 교수(한국외대 명예교수/ 인도네시아국제한국학회 고문)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새마을 운동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국문화를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동시에 인도네시아 문화 이해제고에 노력한다면 새마을운동의 활동 성과가 배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날 세미나에서 인도네시아국제한국학회가 발간한 한국학총서 제10권(꼭 알아야 할 한국문화/ Budaya Korea: Apa Yang Harus Diketahui?) 과 한국학 저널(Jurnal Korean Studies) 제5집이 배포되었다.



Indonesian Heritage Society

누구나 그러하겠지만,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낯선 것을 배우려고 용기를 낸다는 건 시간이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오늘 3개월의 모든 과정을 마무리 하고 박물관 유물 해설가로서의 첫 발을 내딛고 있다. 놀랍고 나 자신이 기특하고 감사하다.

첫 모임의 그 어색함이 되살아나 피식 웃음이 난다. 인도네시아 살면서 두어번 와 본 적이 있는 국립박물관은 그 모습 그대로였고, 새롭게 배울 것이 뭐가 있을까 싶었다. 숙지해야할 몇 권의 책을 받아 들고 뽀뽀한 강의 일정을 생똥맞게 바라보다가 순간 전율을 느꼈다. 익혀야할 것이 엄청 많구나!

유물 공부는 인도네시아 지도를 바라보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Sabang에서 Merauke까지. 예전에는 박물관의 유물들이 그저 외형적인 특이함으로 눈길을 끌었다면, 강의를 들어감에 따라 그 유물 하나가 나에게 말을 걸어온다.

그 속에 담겨있던 신비한 전설과 의미와 상징들이 다시금 생기를 되찾고 다가온다. 내 속에서 이런 외침이 들린다. ‘유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이에

유물해설가 졸업후기



게 들려주고 싶다. 역사를 머금고 있는 그들을 소개해주고 싶다.’

짧은 과정을 통해 어찌 모든 것을 알 수 있으랴! 낮설음으로 만나 유물이라는 통로로 가까워진 4기 동기들을 덤으로 얻은 기쁨이 무엇보다 크다. 서로가 서로에게 ‘특이해~’ 를 반복하며 조금씩 조금씩 친해진 그들이 있어서 박물관 유물 해설가 강의는 내 인생에서 탁월한 선택이었다.

문득 인도네시아 국립 박물관이 궁금해진다면, 당신은 내년 3월에 있을 유물 해설가 제 5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때로는 안해본 일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글 : 손희정 (교육 참가자)



집중! 이 사람



“ 루마인다 김영위원장 유치원 후원천사가 되어주세요!

2016년 5월 19일 한인뉴스 취재팀은 김영위원장님을 찾아 루마인다유치원을 방문했다.

“이제 새로운 3기 유치원생 모집 예정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얼마나 예쁘고 귀여운 아기 천사들이 찾아올지 궁금합니다. 아이들 데리고 소풍가는 방법도 찾고 싶고, 아이들의 교육자재도 보충해야겠고, 맛있는 간식도 더 쥐야겠고....”

19세때 부터 빈첸시오 봉사단에 가입하여 활동을 해왔던 김영휘 원장은 인도네시아 빈곤 아동들에게 미래의 꿈을 키워갈 희망 유치원 Rumah Indah (Jl. Pondok cabe)를 선물했다.

봉사하며 매 순간 행복하다는 그녀의 말에 한없이 고개 숙여졌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모습에 눈이 번쩍 뜨였다. 자극적인 것만 화제가 되는 시대에 따뜻한 감동을 들려줄 모니카 김영휘 원장, 그녀의 이야기를 소개해본다.

Q: 인도네시아에 오게 된 계기는?

A: 한국에서 공인중개사로 근무하다 4년 전 아들이 사업하는 인도네시아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Q: 유치원을 차린 계기는?

A: 인도네시아에서도 최하층의 삶을 살아가는 뼈

물통(쓰레기를 주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사람들의 마을을 방문하였더니 이들의 거주 환경은 열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비만 오면 침수되는 쓰레기 더미 옆에서 버려진 판자로 열기설기 집을 엮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동네의 사람들에게 더럽고 냄새나는 아이들로 여겨져 어울리기가 힘들었고 돈이 없어 유치원과 학교를 못 보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년전, 지인 100여명의 후원으로 5,6세 2개반을 시작으로 현재 1개반을 늘려 3개반, 어린이 30여명이 다닐 수 있는 유치원을 건립하여 전액 무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Q: 유치원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A: 원장을 포함하여 한국선생님 5명이 무료봉사 해주시고, 현지인 교사3명은 교사 자격 소지자로서 급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유치원 임대 및 시설 비용으로 1억 루피아를 사용하였습니다. 2016년의 운영경비는 지인들의 (10만 루피에서 몇 백만 루피)후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월 2천만 루피 정도의 경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모유치원의 협조로 교재를 복사하여 사용하고 인니어, 산수, 영어, 요가, 체육, 만들기, 한글 수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Q: 유치원을 운영하며 보람이 있다면..

A: 배우는 것에 관심조차 없던 부모들이 누구보다 더 적극적으로 아이들과 함께 참여하고 배움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이 뭔지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청결, 깨끗한 신발, 깨끗한 옷, 바른 몸가짐의 교육이 그들의 생활에 스며든 듯하여 기쁩니다.

Q: 교육의 현장에서 학생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드시겠네요...

A: 학교를 못 가는 초등, 중등, 고등 아이들이 우리나라의 검정고시 같은 시험을 통해 정규 졸업자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사회에 나가서 다른 이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평범한 사회인으로 나아가 취업의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Q: 봉사를 하고 싶은데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A: 저도 봉사를 시작할 때 뭔가를 다짐하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시작했습니다. 남을 위한 배려심,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봉사는 절대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나서 하는 게 아니고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Q: 마지막으로 한인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이 글을 읽어 주신 많은 분들이 어린 짝이 잘 자라 날 수 있도록 따뜻한 햇살과 든든한 바람막이, 때론 촉촉한 단비도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집에서 사용하던 인형, 옷가지 등의 후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취재진은 그녀에게 이렇게 까지 봉사하는 이유를 물었다. 그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게 너무 많다. 제가 받은 사랑을 돌려주는 삶을 살고 싶어 봉사를 시작했으며 죽는 날까지 봉사활동은 계속하고 싶다” 고 말했다.

연락처: 김 영휘 원장: 0812-9545-0709
후원금 송금처: HANA BANK,
KIM YOUNG HWUI,
1761-925-6091(루피아)



KEB 하나은행 고객초청 골프대회 개최



4월13일 인도네시아 KEB 하나은행 (은행장 이화수) 은 BSD 골프장에서 고객 120여명을 초청하여 골프대회를 개최하였다. 본 행사에서 이화수 은행장은 '인도네시아 선도은행으로서 남다른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는 동시에 교민사회와 동반성

장하는 힘이되는 은행이 되겠다' 고 밝혔다. KEB 하나은행은 골프대회 뿐만 아니라 경제전망세미나, 부동산/세무세미나를 매년 개최해 오고있다. PT.Ungaran Indah Busana 의 이상일 사장이 대회 우승 트로피를 차지했다.

한인뉴스 창간 20주년 기념 행사

1996년 7월 15일에 창간된 한인뉴스는 한인사회에 다양한 소식과 인도네시아의 역사, 사회, 문화, 경제, 법률 등의 다양한 정보를 한인사회에 제공. 한인사회를 대변하는 전문지로서 인도네시아 한인동포들과 20년을 함께하였습니다. 한인뉴스가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에 커뮤니케이션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한인뉴스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후원해 주신 광고주 여러분과 기고자 분들 그리고 응원해주시는 많은 동포들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이에 한인뉴스는 창간 20주년을 맞이하여 감사의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일시: 2016년 7월 21일, 목요일 오후 6시

장소: 추후 공지

문의: 021 521 2515/ 0818-711-246(한인뉴스 편집팀)

2016년 6월 1일 한인뉴스 발행인 양영연

한인뉴스의 새로운 이름을 공모합니다. 2016년 7월호로 한인뉴스는 창간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한인뉴스의 새이름을 공모합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6월 25일까지 haninnewsinni@gmail.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인뉴스 편집인들은 보다 나은 한인뉴스 발행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무사증 확대 및 이민청 단속관련 재외동포 유의사항 안내

2016.3월 무비자 대상국가 및 요건이 대폭 확대된 이후, 인도네시아 이민청은 2016.4월 무비자를 통해 빈번 출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조사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이민청 사무소에서 경찰, 동사무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조사(단속)반을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동포들께서는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동포 유의사항

①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169개국을 대상으로 ①관광, ②가족방문, ③사회활동, ④문화활동, ⑤공무, ⑥강연 및 세미나 참석, ⑦인도네시아 본(지)사 회의 참석, ⑧경유 등 8가지 사유에 대해 30일간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였습니다.

② 다만, 예정된 체류기간이 30일이상일 경우 공항만에서 도착비자(VOA)를 받아야 하며(1회 기간 연장으로 최대 60일까지 체류가능), 비즈니스

목적은 오직 본(지)사 회의 참석에 국한되므로 취업(에 준하는) 활동은 반드시 사전에 취업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유의사항】

따라서, 방문비자·도착비자 또는 무비자로 입국하신 분들은 취업활동이나 취업으로 간주되는 활동을 할 경우 이민청의 조사 또는 단속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비즈니스 비자를 받고 입국, 기업의 현장관리를 담당하다 일시출국후 재입국과정에서 공항에서 입국이 불허되는등 이민청에서 취업관련 사항을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또한, KITAS를 소지하신 분들은 허가된 분야에 한해서 활동이 가능하므로 범위를 넘어선 취업활동은 조사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합동조사의 특성상 주소지 변경신고 여부(신고된 주소와 실제 거주지 확인)가 주목적이 될 수 있으므로, 특히 이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JIKS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역사자료 수집 안내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이하 JIKS)에서는 개교 40주년을 맞이하여 대내외적으로 JIKS의 위상과 역할을 재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JIKS인의 자긍심과 애교심 고취를 위하여 기록물·사진·영상물 등 학교 관련 사료를 정리·보관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JIKS 사료를 소장하신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대상: JIKS 사료를 소장하신 분
2. 수집 기간: 2016.6.01.~ 6.15
3. 접수 방법
 - 직접 접수: 월~금, 08:00~15:00
 - 우편 접수: Jl. Bina Marga No.24 Kel. Ceger Jakarta Timur 13820, Indonesia
 - E-mail 접수: jiks@jiks.com

※ 기증한 자료의 관리 권한은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에 양도됩니다.

※ 역사관 소장 선정 자료는 기증자를 명시합니다.

단, 기증자 명시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개인이 원본 소장을 원할 경우 사본으로 기증할 수 있습니다.

※ 원본 반환을 요청한 자료는 사본을 확보한 후 반환합니다.

- 문의처: 행정실(담당 정재선): +62-21-844 4958 (Ex.154)/<http://jiks.com>



『100세에도 검도(劍道) 한바』

한국에는 최근에 유행하는 “100세 인생”의 노 래처럼 많은 사람이 좋은 상태로 100세까지 살기를 기원한다.

먼저 소개할 분은 대전의 대청호 근처에 사는 올해 100세 되는 “이상윤” 옹을 만나 보았다. 이 분은 현재 귀만 약간 잘 들리지 않을 뿐 아무 아픈 곳도 없이 건강하게 사신다.

300여 평의 텃밭에서 여러 종류의 채소를 가꾸어, 직접 농사, 빨래, 식사준비 하시는 게 건강의 비결이라 한다. 두 시간 정도의 거리는 걸어서 다닌다. 보통 조그만 산 고개를 넘다 보니 최근에는 산짐승들도 많이 만난다고 한다. 그래서 건강도 유지하고, 산을 넘을 때 산짐승에게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92세에 시작한 운동이 “검도”이다. 현재 검도 2단이시며, 3단 따는 게 인생의 목표라고 말씀하신다.

지금도 호구를 쓰고, 가벼운 대련을 하시며, 징검을 들고 “조선세법”도 시범을 보이신다.

검도를 하면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대련시 죽도로 머리를 많이 맞는 것이 마사지를 해주는 효과라고 할까. 100세도 안경을 쓰지 않고, 정신이 또렷또렷 하신 것도 검도로 정신무장과 기를 다지니 가능하다고 하신다.

식사습관은 10가지 잡곡밥에, 자신이 기른 채소를 주로 삶아서 드신다고 한다. 튀긴 것과 기름진 것은 드시지 않으며 김치도 담아 드시고, 반찬은 절대 사서 드시지는 않는단다. 식사 전 후 물은 조금만 드시고, 꼭 끊어서 드시고 있다. 하루 잠은 8시간~10시간 정도로 피로를 푸신다고 한다. 젊었을 때 낀 안경을 지금은 끼지 않고 있다. 이유는 손가락 중지에 과일용 포크 2날짜리로 지압을 하신다고 하며 권유하신다. 또한 자신의 병은 사전에 예방하신다고 한다. 젊었을 때 수지침을 배워 어지간한 것은 자신이 치료하신다고 한다. 70세와 80세 되는 분들이 많이 찾아와 아픈 곳의 치료를 받고 가신다고 한다. 그렇지만 한번도 돈을 받



아보지 않았다고 한다. 이렇게 남을 돕는 것이 장수하는 또 하나의 비결이라고 하신다.

그는 지금 80세라고 하며, 100세까지 살 것이라고 하신다. 그러면 120세까지 살기를 희망하시는 것이리라. 매일 혼자 방에서 타격대를 두고 검도 연습을 하고 종종 도장에도 나가신다.

두 번째 만남은 부산 해운대의 “한마음 스포츠센터”에서 검도 하시는 최남득(89세, 2단), 이재영(74세, 3단) 및 최한태(73세, 3단) 옹들과 이뤄졌다.

최남득 옹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 4년 전부터 검도를 시작하셨다고 한다. 교장선생님 출신으로 퇴직 교장단 모임에 나가 검도는 일본만 하는 운동이 아니고, 한국의 신라시대 때부터 본국 검법 및 조선세법을 한국의 고유 무술이라고 전수도 하시고 89세의 나이에 할 수 있는 무도는 오직 검도 뿐이라고 강조 하신다. 또한 이재영, 최한태 옹도 5년 전부터 검도를 시작하셨으며 인생의 자신감을 느끼고, 초라하지 않으며, 예의를 갖추는 운동이라 마음이 끌리셨다고 한다.

부산에서 최고수인 김민조 범사(8단) 선생님은 나이에 맞는 지도로 이분들이 아직도 검도를 할 수 있다고 한다. 역시 세 분 다 걸기를 오래하시고, 음식은 싱겁게 드시며 건강을 유지한다고 하신다.

검도에 관해 잠깐 언급하면 한국의 검법인 「조선세법」이 처음 소개된 책은 중국의 모원의가 쓴 「무비지」이다. 무비지는 중국 역대의 모든 병법을 집대성하여 명나라 말기(1621년)에 간행된 책으로 여기에 검법(劍法)은 단 하나만 들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조선세법」이다.

모원의가 말하기를 ‘「조선」에서 검법을 얻었는데 그 법이 구비되어 있다. 신라에는 「무오병법」이라는 병서가 있으며, 단재 신채호 선생은 고구려의 연개소문이 「김해병서」를 지었다고 하였다. 이 김해병서는 고려 때 각 지방의 병마사들에게 반드시 한 벌씩 하사한 병서였는데 이런 서적들이 중국이나 일본으로 흘러 들어간 것’이라고 하였다.

「조선세법」은 문헌으로 남아있는 역사상 가장 오래된 검법이며, 동양 삼국의 검법에 영향을 준 위대하고 자랑스런 문화유산이다. 따라서 검도의 원조는 일본이 아니고 우리 한국이다.

검도에 대한 견해는 시합에서 상대와 겨루어 이기고 지는 어떤 결과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스포츠라고 한다면 자신이 심판이 되어 자신과 겨루어 최선을 다해 수련하는 것이 무도이며 검도이다.

지식은 책으로 배울 수 있지만 검도의 기본정신인 국가에 대한 충성, 부모에 대한 효도와 예절은 검도를 수련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터득하는 것이다.

또한 큰 기합소리로 기를 살릴 때 매사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며 당당하게 인생의 진미를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누구나 오래 살기를 원하지만, 병상이나 휠체어에서 가족에게 누가 되면서, 오래 살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것의 해답을 제시하는 검도를 많은 분들에게 추천하는 바이다.

재인도네시아 대한검도회 회장
4단 강희중





삶의 여행길에 무거운 짐을 정리해보며...

김 현 숙 / 시인, 한국문협 인니지부회원
chenb1005@gmail.com

사고 싶은 것들이 많을 때가 있었다. 당장 필요한 물건이 없어도 ‘윈도우 쇼핑’이라는 이름아래 백화점이나 상점에 진열된 상품들의 디자인과 색상에 눈독을 들이던 시절 말이다. 독특하거나 혹은 값나가 보이는 물건들을 싸게 사는 재미에 자카르타 시내 구석에 박혀있던 골동품 가게들까지 순례하며 폭염과 폭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골목을 뒤흔고 다니곤 했다. 그러다 보니 진열장의 전면엔 나와 있는 진열품보다는 아무렇게나 나뒹구는 뒤쪽의 물건들에 더욱 눈이 갔고 케케묵은 먼지를 털고 나온 그 물건을 돌아오는 시간 내내 이리저리 탐색하는 즐거움은 쇼핑의 원초적인 맛, 바로 그 자체였다.

이렇게 모아진 전리품들은 주로 인니의 조각 장식품이거나 청동으로 만들어진 조그마한 그릇들, 호리병들 그리고 촛대 나부랭이들이었다. 이것들은 태어난 이래 처음, 먼지 없는 얼굴로 거실 장식장위에 잠시 머물다 느닷없이 한국의 지인들에게 선물로 보내졌거나 진지하고 엄정한 테스트를 통과한 멋지고 특이한 것들은 신문에 돌돌 말린

채 이 십여 년을 상자 속에 간혀 있는 중이다. 또한 이 상자들은 이사할 때조차도 풀 수 없을 만큼 특별대접을 받는 물건들로 그 위엔 ‘장식품, 풀지 말 것’ 이라고 유성매직으로 크게 써져있다. 세월 탓인지 그 글씨들도 늙은 사내의 팔뚝에 남아있는 어스름하고 푸르스름한 문신처럼 허무하기까지 하다.

그 다음으로 큰 짐들은 두 아이의 어릴 적 추억이 담긴 상자들이다. 학기를 마무리 하면서 매번 큰 플라스틱 봉지에 들려져 오는 노트, 스케치북, 아트시간에 만든 공예품 그리고 포스터들은 이사할 때마다 이번엔 버려야 한다고 버리고 별러 상자를 열어 보지만 멀리 있는 아들대신 그의 그림과 이야기하고 꾸밈없는 딸아이의 글을 읽으며 풍당풍당 웃는 미소에 주체할 수 없는 행복을 느낀다. 그러느라 금방 지나간 서너 시간에 바빠진 마음은 아무 생각 없이 다시 상자의 뚜껑을 닫아 버리고 만다. 생각지 않은 행복을 주는 물건들이다. 세상에 이토록 재미있는 물건을 버리는 바보가 어디 있단 말인가! 그래도 조금씩 줄어온 물건은 아

직도 큰 플라스틱 상자 두 개를 차지하고 있다. 지인은 언젠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차곡차곡 모아 놓은 아이들의 물건을 아이가 결혼할 때 선물로 주고 싶어 했다.

하지만 난 전혀 그럴 마음이 없다. 살면서 공간이동이 많은 아이들 세대의 환경에 이것이 얼마나 큰 짐이 될지 짐작이 가기 때문이다. 복잡한 절차를 거쳐 사진첩에 모았던 지나간 시절의 기념사진들, 요즘엔 핸드폰 카메라로 손쉽게 찍은 뒤 컴퓨터나 USB에 저장하는 것처럼 이런 추억의 물건들도 이제 마음의 USB에 복사해 두어야 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숙제처럼 마음을 성가시게 한다. 신혼 3년째 이 삼 년을 여행 삼아 살아보자고 온 인도네시아, 아직 때도 묻지 않았던 혼수들은 박스뿐 지 3년 만에 다시 그 박스 속으로 들어가 고스란히 친정의 지하실에 보관 되었다.

예정되었던 3년이 지나도 주인은 돌아올 줄 모르고 정작 애타는 것은 박스 속의 물건들이 아니라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리던 엄마였다. 장마철이면 딸아이 혼수에 곰팡이라도 낄까 노심초사하시고, 햇수가 거듭될수록 가전제품이 상할까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 그보다 지하실의 물건들을 보며 얼마나 많은 시간 큰 딸이 눈에 밟혔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시리다. 한국에 갈 때마다 어머니는 그 물건 정리를 부탁하셨다. 하지만 아까워 쉽게 버릴 수도, 바쁜 일정에 손에 잡히지도 않았다. 아직도 그 물건들은 빛도 보지 못한 채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결국 남보다 더 많은 물건들과 추억들이 그리고 어머니가 나의 귀국을 바라고 있는 셈이다. 요즘 현명한 노인들은 노환으로 몸져눕기 전 생을 함께했던 물건들을 정리하며, 그들의 인생도 더불어 정리한다고 한다. 언제 올지 모를 죽음 뒤에 뒷정리를 해야 하는 자식들의 수고를 덜기 위함이라. 사실 장례 내내 부모를 잃은 황망함과 장례 절차에 기운이 빠진 자식들이 또 한번의 깊은 슬픔을 맛보는 건 돌아가신 부모의 유품을 정리하는 시간이다. 간혹 너무 많은 망자의 유품들은 유족들의 스트레스가 되기도 한다. 예전과 달리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기도 어려울 뿐 더

러 그 많은 짐들을 한꺼번에 정리하기엔 몸과 마음이 이미 지쳐있다. 게다가 돌아가신 부모 짐이 가까이 있지도 않고 바쁜 생활 때문에 쉽게 시간을 내기도 어려운 게 사실이다.

심지어 요즘은 고인의 중요한 유품만 유족들이 먼저 챙기고 나머지는 용역업체에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한단다. 너무 많이 가지고 버리지 못한 욕심에서 나온 씩씩한 현상이다. 좋은 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은 욕심이 아니라 인간의 본능인지도 모른다. 눈만 뜨면 기능이 향상되고 더욱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쏟아져 나오는 상품들을 모른 척할 수만은 없다. 필요한 게 있다면 당연히 사야하지만 때론 가지려는 사람보다 수명이 긴 물건들을 들이는 상황은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다.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잘 정리하지 않고 새로운 물건을 들일 때 심사숙고 하지 않으면 인생의 부피는 쓸데없이 늘어만 갈 것이다. 젊을 땐 빈 공간을 보면 채워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불안한 마음까지 들곤 했다. 하지만 지금은 빈 공간에서 마음이 정화됨을 느낀다. 굳이 '여백의 미' 라고 고급스럽게 표현하지 않더라도 그 공간이 주는 여유로움, 넉넉함, 정갈함은 마음을 치유하고 위로해 준다. 이로써 인테리어에 대한 나의 생각도 많이 바뀌었다. 나에게 인테리어란 더 이상 집 안 가꾸기가 아니다.

스트레스로 마음이 무거울 때 기댈 수 있는 나무 한 그루와 넓고 푸른 가슴으로 나를 안아주고 위로해 줄 하늘, 그리고 그 하늘을 편안하게 볼 수 있는 큰 창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 그것이면 더 바랄게 없다. 여기에 한 가지 보태야 할 것이 있다면 좋은 추억을 끝도 없이 담아 놓을 넉넉한 가슴뿐... 산다는 것은 어쩌면 멀고도 긴 여행이다.

앞으로 남은 여행이 즐거워지려면 무거운 짐을 모두 내려놓고 가볍게 가도 괜찮을 듯싶다. 집안 구석구석 해묵은 짐을 찾아 정리하고 햇볕 좋은 날 장롱 속 오래된 옷들과 세상사에 젖은 마음도 함께 내놓고 말려 보면 좋겠다. 어쩌면 무거운 삶의 짐들이 조금은 덜어지지 않을까...

신용카드 청구서

TAGIHAN KARTU KRED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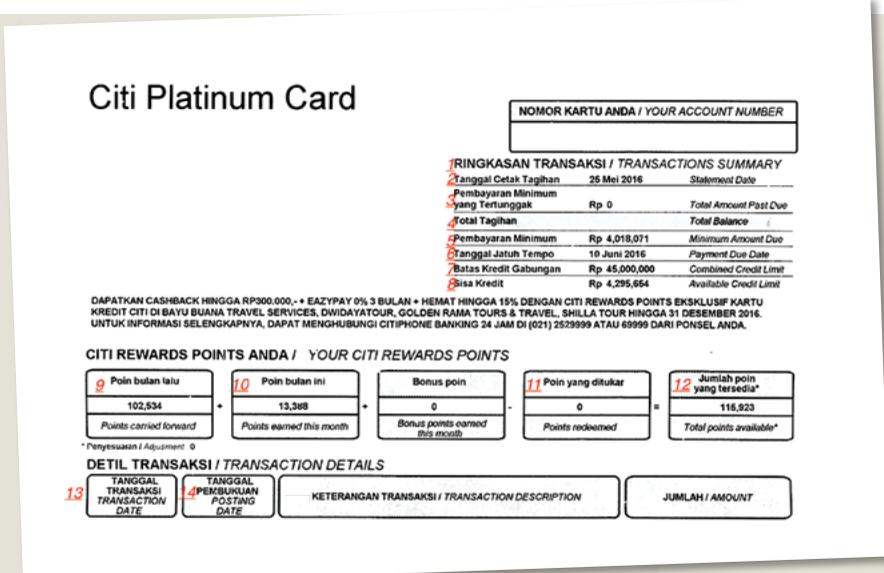
허영순 <OKTN>

신용카드 내역서 받아오면 청구금액만 확인하게 됩니다. 한도금액 및 잔여 한도액을 체크해 보세요. 카드사 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캐쉬백도 적절히 이용하고 사용금액에 따른 포인트로 연회비도 지불할 수 있습니다.

모든 카드사 용어가 배치만 다르고 거의 비슷하므로 시티은행 카드 청구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1. Ringkasan Transaksi : 거래내역 (요약)
⇒ Ringkasan : 요약, 개괄, 줄임
2. Tanggal Cetak Tagihan : 청구서 발행일 (발행일까지의 거래 내역이 청구 됩니다.)
⇒ Tagihan : 청구서 (Surat) , Cetak : 인쇄 또는 발행
예) 2016년 5월 25일 (2016년 4월 26일에서 5월 25일까지의 사용내역)
3. Pembayaran Minimum yang Tertunggak : 미지불금 최소 지불
⇒ Tertunggak :어근은 Tunggak / Tunggakkan 으로 지불이 늦어진, 미납된, 체납된 이란 뜻
4. Total Tagihan : 청구 총액
5. Pembayaran Minimum : 최소 지불

6. Tanggal Jatuh Tempo : 결재일
⇒ Tempo : 기일, 기간으로
Jatuh tempo : 숙어로 사용된다.
7. Batas Kredit Gabungan : 총 한도
⇒ Batas :제한, 경계, 한도 등으로
Batas waktu : 제한시각
Batas kecepatan : 제한속도 라는 숙어로 자주 사용된다.
8. Sisa Kredit : 잔여 한도
9. Poin Bulan Lalu : 전월 포인트
10. Poin Bulan Ini : 월 포인트
11. Poin yang ditukar : 포인트 사용내역
⇒ Ganti (대신, 대용품) 와 구별되어 사용되며 주로 화폐 교환시 사용된다.
Tukar (교환)
Rupiah dengan Dolar : 루피아를 달러로 바꾸다 (환전하다)
12. Jumlah Poin yang tersisa : 잔여 포인트
13. Tanggal Transaksi : 거래일
14. Tanggal Pembukuan : 기입일
⇒ 어근 Buku (책, 기록물 [catatan]) 에 접두 접미어가 붙어서 명사의 뜻을 갖는 장부, 등록, 기입의 뜻을 갖는다.



채식주의자

한강 연작소설, 맨부커 인터내셔널 수상작

스스로 나무가 되어간다고 생각하는 주인공

인간의 심리와 내면을 바닥부터 그려내면서
자신의 마음 속을 들여다보게 만드는 연작 소설집.
서로 다른 내용과 분위기의 소설들이 하나로 만난다.

10년전의 이른 봄, 작가는 한 여자가 베란다에서
식물이 되고, 함께 살던 남자는 그녀를 화분에 심는
이야기 『내 여자의 열매』를 집필하였다. 언젠가 그
변주를 쓰고 싶다는 생각에서 출발하게 된 것이 바
로 이 연작소설 『채식주의자』이다. 표제작인 『채
식주의자』, 2005년 이상문학상 수상작 『몽고반
점』, 그리고 『나무 불꽃』으로 구성된 소설이다.

소설가 한강은..

올해로 등단 13년째를 맞는 작가는 작품 속에 단
아하고 시심어린 문체와 밀도있는 구성력이라는
작가 특유의 개성을 고스란히 반영시켜 놓았다.
표제작인 『채식주의자』는 지금까지 소설가 한강
이 발표해온 작품에 등장하였던 욕망, 식물성, 죽음
등 인간 본연의 문제들을 한 편에 집약해 놓은 수
작이라고 평가받는다.

이 외에도 욕망과 예술혼의 승화를 절묘하게 결합시
킨 작품으로 평가받으며 이상문학상을 수상하였던 2

부 『몽고반점』은 연
작소설 『채식주의자』
의 전체 줄거리에 연결
되면서 소설의 텍스트
를 더욱 확장시킨다. 상
처입은 영혼의 고통을
식물적인 상상력에 결
합시켜 아름다움의 미
학에 접근하고 있다.



한강의 소설은 신세대 소설가답지 않게, 세상을
다 살아버린 자의 좌절과 비애의 분위기를 짙게 풍
긴다. 그의 주인공들은 한결같이 결손 가정이나 비
참한 죽음을 과거사로 안고 있거나, 발작이나 허무
한 복수의 장면을 연출하거나, 정처 없이 떠도는 인
생으로 살아간다. 이러한 비탄한 삶을 통해 실존의
문제에 천착하며 서정적 방식으로 이를 풀어 나간
다. 「샘이깊은물」 「출판저널」 「샘터」 등에서
기자로 일했다. 1995년 7월 첫 소설집 『여수의
사랑』을 펴낸 후, 사농기만 하고 못 읽었던 책도
읽고 여러 곳을 여행하고 싶어서 직장을 그만 두
었다. 전남 장성으로 귀거래한 소설가 한승원의
고명딸이며, 오빠 한동림(본명 한국인)도 신춘문
예를 통해 등단한 소설가 집안이다.

[알라딘 제공]

사피엔스

이제 우리는 무엇을 인간이라고 할 것인가?

저자: 유발 하라리 / 김영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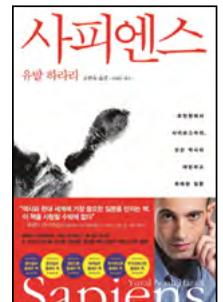
지금으로부터 10만 년 전, 지구에는 호모 사피
엔스뿐만 아니라 네안데르탈인, 호모 에렉투스 등
최소 6종의 인간 종이 살아 있었다. 이후 호모 사
피엔스 종만이 유일한 승자로 지구상에 살아남게
되었고, 이제 그들은 신의 영역까지 넘보고 있다.

저자는 “앞으로 몇십 년 지나지 않아, 유전공학
과 생명공학 기술 덕분에 인간의 생리기능, 면역
계, 수명뿐 아니라 지적, 정서적 능력까지 크게 변
화시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하지만
이런 기술 발달은 모두에게 공평한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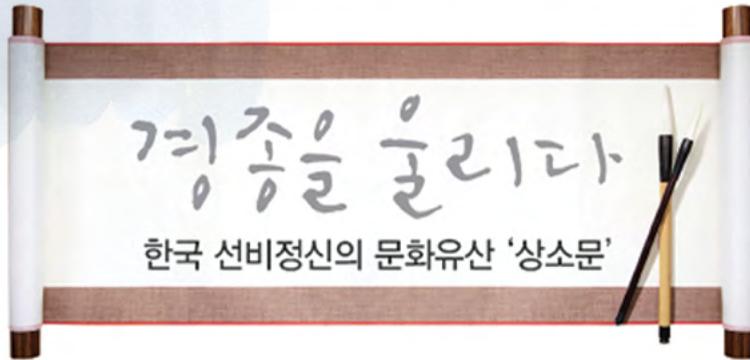
부자들은 영원히 살고, 가난
한 사람들은 죽어야 하는 세상
이 곧 도래할 것이라는 말이
다. 하지만 저자가 우울한 이
야기만 풀어놓는 것은 아니다.
그는 행복에 대한 연구를 시작
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고, 행
복에 대한 가능성 역시 더 많
이 열려 있다고 말하며, 일말의 여지를 남긴다.

이제, 인류가 멸종할 것인지, 더 나은 진보를 이
룩할 것인지, 어떤 것에 방점을 두고 어떤 미래
를 만들 것인지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할 때이다.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한국 선비정신의 문화유산 '상소문'



상소문은 정의의 문학이자 관각문학의 꽃이었다.

막힌 언로를 열다 '상소문'

상소문의 문체는 어떻게 출발하였을까? 원시 국가가 형성되면서 부터 인간은 정치를 떠나서 살 수 없었고 황제와 제후, 재상과 신하가 있게 되면서 보고와 찬양을 위한 위대한 문장도 있게 되었다. 중국 고전문학의 대표적인 비평서인 유협의 『문심조룡(文心雕龍)』에서 “요(堯) 임금의 사악(四岳)의 제후에게 소통을 구했고, 순(舜) 임금은 8명의 제후에게 명을 내렸다. 중국 고대 제후는 천자에게 정치 상황을 보고하였으며 이것이 상소문의 시작이다” 라고 하였다.

상소문은 임금과 신하 사이의 막힌 언로를 소통하면서 출발한다. 정치 상황의 진술은 시대마다 없을 수 없었고, 천자에게 올리는 문장이니만큼 품격과 형식을 갖추어야 했다. 상소문은 소통의 미학이다.

조선 시대에는 간관(諫官) 등이 주로 임금에게 정사를 간하기 위해 올리던 글을 상소(上疏)라 하고 의견서나 품의서는 상주(上奏)라 하여 소(疏)와 주(奏)를 구분하였다. 『동문선』에서는 주의(奏議)와 차자(劄子)를 구분했다. 주의(奏議)는 김후직(金后稷)의 『상진평왕서(上眞平王書)』, 설충(薛聰)의 『풍왕서(諷王書)』 등에서 출발하여 33편이 실려 있으며, 그 명칭은 상서(上書), 서(書), 진서(陳書), 계서(戒書), 청소(請疏), 청장(請狀), 청서(請書) 등으로 쓰이고 있고, 차자(劄

子)는 12편이 실려 있는 데 모두 제목 끝에 차자(劄子)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임금에게 올리는 주의류(奏議類)는 모두 상소문이라고 통칭하여도 큰 잘못은 없다고 생각된다.

미학을 추구하는 관료의 글쓰기

우리의 조선왕조실록이나 개인 문집 중에서 상소문의 형식으로 된 글이 차지하고 있는 양은 간과할 수 없을 만큼 많다. 상소문은 임금과 소통하는 문장의 정수로서, 관각문학의 꽃이라는 위상을 가지고 동양사 속에 거대하게 자리 잡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소문은 왕조 시대 임금에게 올린 정치적인 글로서 불만한 것이 못 된다는 편견 때문에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상소문 중에는 이사의 『축객서』, 제갈량의 『출사표』, 이 밀의 『진정표』 등과 같이 아름답고 감동적인 글들도 상당량 존재하며, 이 글들은 『고문진보』에 편집되어 있으며 명문장으로서 후대 독자들에게 오랜 시간 동안 사랑을 받아온 명작이다. 한유의 『불골표』를 비롯하여 구양수와 육지 등의 상소문은 당송 고문의 전범으로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왕에 대한 설득과 감동이라는 문학적인 특성을 지닌 상소문은 문장에 대한 구성 논리와 설득을 위한 비유, 당대 사회에 대한 현실 인식 등 문예적인 내용들이 들어있다. 상소문은 오

도끼에 맞아 죽더라도 바르게 간하고,
가마솥에 삶겨서 죽더라도 옳은 말을
다하면 이 사람이 바로 충신이다.

- 포박자(抱朴子) 中 -

랜 역사를 두고 계승·발전되어 온 장르로 장중하고, 사실적이며 전아한 문체를 구사해야 한다는 문예미학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고전 산문 중에 현실 인식과 정치적인 ‘문장 강화’의 정수를 볼 수 있는 글이 상소문이다. 상소문의 문예미학적인 특징을 종합 정리해 보면 장중하고 웅혼하며, 전아하고 청징하며, 분명하고 명쾌하며, 성실하고 간절하며, 풍만하고 유창하며, 사리에 적절하고, 대구가 많이 쓰였고, 화려한 수사어의 꾸밈을 피하며, 핵심을 찌르면서도 소략해서는 안 되고, 분명하면서도 천박해서는 안 된다는 것 등이다. 상소문은 미학을 추구하는 관료의 글 쓰기로 최고 품격의 문예종합예술이었다.

이것은 조광조가 언급한 것으로 선비정신의 정의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의 선비들은 나라의 기강을 세우고 임금의 마음을 바로잡기 위해 도끼를 매

고, 명석을 짚어지고, 죽음을 각오하는 상소를 올려 충정을 표출하였다.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려고 궁궐 앞에 이마를 찡어가며 상소를 올려 왕도를 펼쳤고, 임금에게 관료 선비들의 충정은 의로운 길을 열었고 언로가 막히면 목숨을 걸고 상소를 올려 길을 열었다. 이육(利慾)에 눈이 멀어 백성의 재물을 수탈·착취하고 백성의 고혈을 짜는 탐관오리들을 내쫓기 위해 임금에게 눈물을 흘리며 간곡한 어조로 상소를 올려 백성들을 보호하였다. 상소는 정의의 문학이자 칼보다 무서운 글밭이었으며 관각문학의 정수였다.

조선 시대 선비들의 상소문에는 우국애민(憂國愛民)의 열정이 살아 있다. 임금의 잘못을 바로잡고 나라의 장래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우리의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선비들의 진실한 마음과 우국애민 정신. 선비들은 임금에 대한 한 치 불의도 용서하지 않고 조금의 비리와 방심도 묵과하지 않았다. 오직 나라와 백성을 걱정하며 올바른 다스림의 길을 가기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선비들의 정의를 위한 행진곡, 상소. 이것은 우리 역사에 길이 남는 선비 정신의 지조와 절개, 그리고 의리의 서슬 퍼런 담론이다. 상소문은 우리 문화유산 중에 가장 자랑할 만한 선비 정신이다. 상소문의 정신을 잘 이해하고 계승하여 현대사회에서 상실되어 가는 정의와 용기를 되살려 청렴한 국가를 건설하는 기반이 되길 기원한다.

글:신두환(안동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格君心 임금의 마음을 바르게 하며
陳王道 왕도를 펼치며
關義路 의로운 길을 열며
塞利源 이육의 근원을 막는다

- 율곡 이이의 『도봉서원기』 中 -

인도네시아 민법(5)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centrin.net.id
YSM & PARTNERS

(지난 호에 이어 계속)

8. 물권법

물권법은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물건 혹은 권리(재화)에 대한 사람의 지배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며, 인도네시아 민법에는 민법전 제2권 제499조에서 제1232조까지 규정하고 있다.

지난 호에 소개했던 상속법도 민법전 제2권에 들어 있으나 상속법을 물권법에 포함시키는 것이 한인의 법정서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어서 물권법에서 분리시켜서 소개했다.

물권을 규율하는 법은 민법외에 관습법도 있으나 수백에 달하는 부족이 제 각기 가지고 있는 관습법을 가지고 있는 인도네시아 특성 상 관습법은 건드리기 힘든 사항이라 민법상의 물권법만 설명한다.

8.1. 물권 법정주의 원칙

인도네시아는 제도상으로는 물권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물권 법정주의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물권만이 허용된다는 원칙이다.

이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만들지 못하며, 법률이 정한 것과 다른 내용을 부여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관습법이 지배하는 지역에서는 법률보다 관습법이 우선한다. 필자가 경험한 바로는, 전인미답 동부칼리만탄의 원시림에서 원주민들과 토지에 대한 권리 문제로 분쟁을 겪었으며, 중국에는 원주민의 권리라고 규정되어 있는 법률은 없으나 관습법에 근거한 원주민들의 토지, 나무 및 과수목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토지에 대한 배상을 할 수 밖에 없었다.

8.2. 물건(재화)의 종류

민법에서는 유형재화, 무형재화, 동산 및 부동산으로 구분하고 있다.

8.3. 물권의 종류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권은 점유권(Hak Bezit), 소유권(Hak Eigendom), 지역권(Hak Servituut), 지상권(Hak Opstal), 임차권(Hak Erfpacht), 결실사용권(Hak Pakai Hasil), 매도물건 회수권(Hak Reklame), 유치권(Hak Retentie), 질권(Hak Gadai), 담보권(Hak Hipotik)이 있다.

8.4. 점유권(Hak Bezit)

점유권이란 물건(재화)을 사실상 자신이 직접 혹은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점유 혹은 지배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물권이다. 점유를 정당화하는 법률상의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지 않고 사실적 지배 상태를 보호해주는 제도이다.

물건의 소유자로서 점유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소유를 빌려서 점유하는 경우, 타인으로부터 부락을 받고 점유하는 경우, 훔쳐서 점유하는 경우, 점유의 원인을 따지지 않고 사실적 지배 상태를 보호해주는 것이 점유제도의 취지이다. 점유자는 점유물을 이용하고, 결실을 얻을 수 있으며, 점유의 침탈에 대해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점유물 보호 및 보수에 지출된 비용을 상환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점유에는 성실 점유와 불성실점유가 있으며, 성실점유와 불성실점유, 둘 다 일단은 법의 보호를 받는다.

불성실점유일지라도 법에서는 일단은 성실점유로 보며, 불성실점유를 증명하는 의무가 불성실로 인한 피해자에게 있다. 훔친 지갑을 가지고 있는 도둑일지라도 일단은 지갑을 지배하고 있는 도둑의 점유권을 인정하고, 도둑이 지갑을 훔친 사실, 즉 불성실점유를 입증해야 한다. 도둑의 불성실점유를 입증하면 도둑의 점유권은 소멸한다. 사실적 지배를 상실하면 점유권은 소멸한다.

8.5. 소유권(Hak Eigendom)

소유권은 물권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써, 물건(재화)을 자신의 것으로써 직접적이며, 배타적이며, 전면적으로 지배하며, 사용하며, 수익을 취하며,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즉, 완전물권을 뜻한다. 소유권은 자본주의의 기초이며 시장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소유권이 시장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류의 번영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소유권은 소유권 보유자의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며, 공익을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적 필요에 의해 소유권을 제한받을 수 있으며, 소유권에 대한 제한은 반드시 법률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594조에 규정된 소유권의 발생 이유는 i)점착(Perlekatan), ii)시효 취득(Daluwarsa), iii)상속(Perwarisan), iv)소유권을 이전시키는 법률행위(Peristiwa Perdata) 이다.

8.5.1. 점착(Perlekatan)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토지 안에 있는 들짐승, 물고기 및 식물은 모두 토지 소유권자의 소유이며, 들짐승이 낳은 새끼, 물고기가 낳은 새끼, 과일나무가 맺은 과실, 자신 소유의 가축이 낳은 새끼, 지진으로 인한 지각 이동으로 땅이 늘어난 경우에도 늘어난 땅은 모두 땅 소유권 보유자에게 소유권을 발생시킨다. 소유권이 없는 바다에 화산 폭발로 새로운 섬이 생기는 경우에는 새 섬은 국가에 속한다.

8.5.2. 시효 취득(Daluwarsa)

법에 정한 일정한 기간 물건을 점유하면 소유권이 발생한다. 토지의 경우 아무런 클레임없이 30년을 점유하면 해당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8.5.3. 상속(Perwarisan)

유언장에 의한 상속이 상속법에 우선한다. 그런 상속법은 최소 유류분을 정해 상속인을 보호하고 있다.

8.5.4.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법률행위(Peristiwa Perdata)

매매, 증여, 교환 등 소유를 이전시키는 법률행위에 의해 소유권이 발생한다.

8.6. 지역권(Hak Servituut)

진입로가 없는 토지에 대해 인접한 토지에서 진입로 만들 땅을 내주거나, 배수로가 없는 토지에 대해 인접한 토지에서 배수로 만들 땅을 내주는 등,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 인접한 다른 사람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역권이라고 한다.



지역권은 통상 계약으로 발생하나, 상속 혹은 증여로도 발생한다. 조망을 가리는 방향에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조망권도 지역권에 속한다.

8.7. 지상권(Hak Opstal)

지상권은 건물, 시설물,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서나 식물을 심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를 이용하는 물권이다. 지상권은 통상 계약에 의해 발생하며 상속 혹은 증여로도 발생한다. 양도가 가능하며 담보도 가능하다.

8.8. 부동산 임차권(Hak Erfpacht)

다른 사람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부동산을 사용 및 수익을 할 수 있는 권리이며, 임차자는 현금, 생산물 혹은 다른 수단으로 임차비를 지불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부동산 임차권은 i) 토지와 지상물이 한 사람의 소유가 되거나, ii) 지진, 홍수 등 이유로 부동산이 소실되거나, iii) 30년 동안 사용하지 않거나, iv)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기되거나, v) 토지 소유주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키면 부동산 임차권은 실효한다. 한국의 전세권과 유사하다.

8.9. 결실사용권(Hak Pakai Hasil)

다른 사람 소유물을 사용하고 소유물에서 나오는 모든 결실을 갖게하는 물권이다. 결실사용권 보유자는 해당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자신의 소유처럼 신의성실 의무를 다 해 보호 관리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다른 사람 소유 전답에 농사를 짓는 경우에 결실사용권이 발생한다.

8.10. 매도물건 회수권(Hak Reklame)

민법 제1145조-제 1146조에 규정되어 있다. 물건 매도자가 거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매입자로부터 물건을 회수할 수 있는 물권이다.

거래조건이 일시 완불 거래이며, 매도인이 산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주시지 않았거나 재매도하지 않고 아직 매입인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만 매도물건 회수권이 발생한다. 이미 임대를 해줬거나 재매도해서 해당 물건이 매도인의 장악에 있지 않는 경우에는 매도물건 회수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8.11. 유치권(Hak Retentie)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전액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잡아둘 수 있는 권리이다.

자동차 주인이 자동차 수리비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에, 자동차 정비공장은 자동차 수리비를 전액 받을 때까지 해당 자동차를 붙잡아둬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자동차 정비공장에게 유치권이 있기 때문이다.

(다음 호에 계속)

재인도네시아 개한검도회에서는

검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모시고 아래와 같이 지도 및 보급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1.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5시~7시

2. 장소: 한국국제학교 체육관

*수련자는 대한검도회에서 실시하는 승단심사에 참여가능

*수련자중 인도네시아 대표선수 선발전을 거쳐 매년 전국체육대회에 참가 가능

*죽도 및 도복은 당 협회에서 구입가능

문의:사무국장 박시현(2단) 0815 86909000

총무 김희원 0812 10451923

재인도네시아 대한검도회 회장 강희중

한.이니 문화연구원 www.ikcs.kr

Batik, the Soul of Indonesia

2016 HansaeYes24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가나인사아트센터 GANAINSA ART CENTER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길 41-1
41-1, Insadong-gil, Jongno-gu, Seoul
T +82-2-736-1020 F+82-2-730-0466
http://www.insaartcenter.com



전시기간 중 한국에 계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시기간 2016.06.22 ~ 2016.06.27 / 10am ~ 7pm

주차장소 인근 공용주차장을 이용해 주십시오

주최 한세에스24문화재단

기획 한·이니문화연구원 (재인도네시아한인회)

후원 외교부, 인도네시아 대사관, 한-아세안센터, 자카르타 직물박물관

한세에스24문화재단
www.hansaeys24foundation.com



Indonesian Heritage Society

제 39차 헤리티지 따만미니

공원전통가옥관 탐방 및 아이맥스 영화관람

일시: 2016년 6월 15일 (수) 9시 30분

장소: TMII 왼쪽 주차장 공터

*모든 일정 변경 가능

신청접수: 헤리티지 밴드(댓글로 성함과
전화번호 써주세요)

회비 15만 루피아

준비물: 모기퇴치제, 물, 부채

제 39차 헤리티지 탐방

와양 컬렉터 그레고리의 자택

일시: 2016년 6월 13일 (월) 9시 30분

장소: Jl Gelagah 47

Pisangan Ciputat Timur

신청접수: 헤리티지 밴드(댓글로 성함과
전화번호 써주세요)

회비 10만 루피아

준비물: 모기퇴치제 물 부채

주최: 인도네시아 헤리티지 소사이어티
코리안섹션

막힘없는 기(氣)의 순환

균형과 조화의 아름다움을 찾아서

오스트리아 출신 한의사1호 라이문드 로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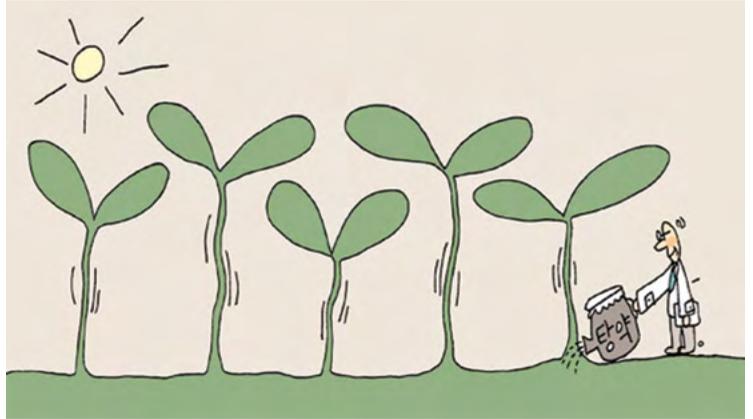
벽안의 청년이 한의학에 빠지게 된 사연

30년 전, 한 오스트리아 출신 청년이 한국을 찾았다. 경제학을 전공하고 직장까지 다니던 이 평범한 외국인은 언젠가부터 생겨난 동양에 대한 호기심으로 무작정 길을 나섰다. 그의 행선지는 자연스레 한국으로 향했고 당시 느낀 한국의 첫인상은 ‘활기!’ 그 자체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낯설고 생경한 도시에서 인생의 커다란 전환이 기다리고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호기심으로 시작한 태권도장에서 발목을 빼기 전까지는 말이다. 다친 부위만 치료하는게 아니라 다른 부위에도 침을 꽂는 건 서양의학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었고, 그의 호기심은 ‘제대로 알아보고 싶은 욕망’으로 발전했다. 그는 정식으로 한의대에 진학을 해 한의학의 세계에 입문하게 되었다. 서양에서 나고 자란 청년이 음양오행의 원리를 이해하고 한자로 된 교재로 공부한다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는 전통 한의학이 가진 가능성과 그 깊이에 점점 매료되었다.

“서양의학에서는 육체와 정신을 분리된 영역으로 이해하지만 동양에서는 그 상호연관성을 기본으로 봐요. 동양에서는 사람 자체를 하나의 소주주로 보는 거예요.”

세상과 인간에 대한 이런 통합적 세계관은 서양문화에서 간과하거나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푸는 키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에겐 더욱 매력적인 발견이었다. 동양의학의 여러 갈래 가운데서도 한의학의 독보적 성취라 할 수 있는 사상의학은 그로 하여금 한국에서 뿌리내리며 살도록 한 강력한 유인이 되기에 충분했다



걸음을 멈추게 하는 가야금 선율의 안식

현재 자생한방병원에서 주로 외국인 환자를 전담하고 있는 그의 주된 관심은 한의학의 새로운 확장 가능성을 열어가는 일, 바로 ‘한의학의 세계화’에 모아지고 있다. 진료실에서 접하는 다양한 치료 경험들을 수치화하고 논리적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이론적 정립이나, 해외 의학과 연계할 수 있는 학문적 교류 기회를 늘리는 것도 그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역이다. 한편 의료인으로 살아가는 그의 일상 가운데 가장 부족한 것이 있다면 문화적 즐거움을 향유할 여유가 너무 없다는 점이다.

자주 찾는 한국의 전통문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겸연쩍게 웃으며 전통 차 한 잔의 여유나, 오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가야금 산조 한 가락의 위안을 이야기한다.

“가야금 소리는 마음을 달래주는 힘이 있어요. 연주자의 호흡이 그대로 아름다운 음악이 되는 대금소리도 좋아요. 어딘가 마음을 차분히 안정시키고 치유하는 힘이 있는 것 같더군요.”

바쁜 하루일과를 마치고 진료실을 나서기 전 잠시 젖어보는 전통의 선율. 그에겐 걸음을 멈추어 생각에 잠겨볼 수 있는 찰나의 안식이다. 사람의 질병을 치유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누리는 색다른 치유비결이라 해도 좋을 듯하다.

한의학 세계화의 최전선에 서다

서울시 홍보대사로서 활동했던 적이 있는 그는 한 의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외에 알려야겠다는 책임감을 갖게 됐다고 한다. 해외에서는 한의학에 대한 터무니없는 오해와 폄하의 분위기가 여전하다. 그는 서양인으로 한의사가 된 최초의 인물로서 마땅히 느끼는 사명감이라 말했다.

“한의학에서 기(氣)라는 개념은 상당히 중요해요. 이걸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서양인들에게는 ‘에너지’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지만 한국인에게는 일상의 도처에 넘치는 의미예요. 기운이 없다, 분위기, 인기, 기분 등 언어 자체에 녹아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개념이지요.”

막힘없이 순환되는 기의 상태가 곧 건강이라고 한다. 몸과 마음에, 혹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기가 막혔을 때’ 병이 생기는 것이다.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한국적 전통의 건강함과 아름다움을 더 넓은 세계에서 흐르게 하는 일은 이미 뺏속까지 한국인이 되어 살아가는 그가 달려갈 다음 목표가 되고 있다. 동양의학에 대한 대표적 오해는 ‘비과학적’이라는 점이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서양의학 중심의 기준에서 해석된 결론일 뿐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그는 서양의학에서도 ‘통하는’ 이론적 체계화도 한의학을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 강조했다. 운명처럼 한의사가 되어 살아가는 그의 간절한 목표는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 동양과 서양 사이에 기운차게 흐르는 건강한 소통의 문화인지도 모르겠다.

(월간 문화재 사랑/ 글:김수연, 사진:정우철)

2016년 안인회 임원잔조금 명단

2016년 5월1일-5월31일

번호	직책	성명	회사명	납입 연도	금 액	
					USD	IDR
1	한인회 법인회원	Achmad Baiquni	BANK NEGARA INDONESIA	2016		135,000,000
36	한인회 부회장	김 동 수	BANK WOORI SAUDARA IND.	2016		67,000,000
37	한인회 수석부회장	강 희 중	SUNG TECHNOLOGY	2016		67,000,000
38	한인회 자문위원	김 석 래	INACON LUHUR PERTIWI	2016	1,000	
39	한인회 부회장	이 중 현	LEO KORINSIA	2016		65,000,000
40	한인회 자문위원	송 재 선	PUTRA HANKUK	2016		13,200,000
41	한인회 자문위원	하 연 수	SEOLIN NIAGATAMA	2016	1,000	
42	한인회 부회장	이 호 덕	VICTOR JAYA RAYA	2016		67,000,000
43	한인회 부회장	홍 춘 식	SENG DAM JAYA ABADI	2016		67,000,000
44	한인회 이사	엄 상 배	RODEM TOURS	2016		13,200,000
45	한인회 자문위원	김 영 만	BATAVIA CHEMTEK	2016		13,200,000
46	한인회 이사	안 상 영	DAEHWAL LEATHER LESTARI	2016	1,000	
47	한인회 이사	김 문 수	QUITY INDONESIA	2016		13,200,000
48	한인회 이사	서 영 룰	PRATAMA ABADI INDUSTRI	2016		13,200,000
49	한인회 이사	김 성 국	PERTA SAMTAN GAS	2016		13,200,000
50	한인회 이사	김 경 곤	SUKWANG INDONESIA	2016		13,200,000
51	한인회 이사	정 철 주	DONG-IL INDONESIA	2016		13,200,000
52	한인회 이사	이 상 일	UNGARAN INDAH BUSANA	2016		13,200,000
53	한인회 이사	양 태 화	BOSUNG INDONESIA	2016		13,200,000
54	한인회 이사	권 희 정	SAMICK INDONESIA	2016		13,200,000
55	한인회 이사	윤 조 현	HANKOOK CERAMIC IND.	2016		13,200,000
56	한인회 이사	이 준 하	DAELIM INDONESIA	2016		13,200,000
57	한인회 이사	양 시 완	KISWIRE INDONESIA	2016		13,200,000
58	한인회 자문위원	전 민 식	POWERTECH INDONESIA	2016		13,200,000
59	한인회 이사	정 용 완	HUNG A INDONESIA	2016		13,200,000
60	한인회 자문위원	김 병 철	MISUNG INDONESIA	2016		13,200,000
61	한인회 이사	임 성 용	MIRINA NUSANTARA	2016		13,200,000
62	한인회 이사	이 옥 찬	KORINA SEMARANG	2016		13,200,000
63	한인회 이사	노 예 범	SAM PUTRA INTI	2016		13,200,000
64	한인회 이사	손 용	CJ INDONESIA	2016		13,200,000
65	한인회 이사	윤 석 환	SUNG SHIN INDONESIA	2016		13,200,000
66	한인회 고문	배 도 운	DOOSAN CIPTA BUSANA JAYA	2016		67,000,000
67	한인회 자문위원	최 정 남	GLOBAL FIBERINDO	2016		13,200,000
68	한인회 자문위원	현 상 범	INAMEN JAYA	2016		13,200,000
총 금액					US\$3,000	Rp851,800,000

2016년 안인회 개인외비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 납부명단

2016년 5월 31일 기준(접수순)

번호	성 명	납입연도	금 액 (IDR)
115	송 재 선	2016	300,000
116	김 영 만	2016	300,000
117	임 성 용	2016	300,000
118	신 규 태	2016	300,000
119	김 종 웅	2016	300,000
총 금액			Rp.1,500,000

[안인외 외비 납부 안내]

개인회비는 가구당 매년 Rp. 30만 로

각 기업, 단체, 협의회, 동호회, 동창회 등의 모임에서
한인회원 모두의 의무인 회비납부를 통해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재원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장 양영연 배상

<보내실 곳>

	BANK WOORI SAUDARA INDONESIA	BANK KEB HANA INDONESIA	
계좌번호 (루피아)	Rp. A/C NO: 100-913-000-538	Rp. A/C NO: 220-200-5949	Rp. A/C NO: 001-001-100-2049
예금주	ASOSIASI KOREA	YAYASAN ASOSIASI KOREA	

외원증 발급

회원이 되신 분(기 납부하신 분 포함)께 **회원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구비서류: 여권 혹은 키타스 사본, 사진1매(크기에 상관 없음)

통역봉사자(안인외 소속) 모집 안내

자격: 인도네시아거주, 인니어 능통

연령: 제한없음

인원: 약간명

전화 : (021) 521-2515



구인기업과 구직자를 모집합니다

산업인력공단(HRD Korea) 인도네시아 EPS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인도네시아 EPS센터에서는 인도네시아 취업을 원하는 한국인과 한국인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을 모집합니다.

구인 기업과 구직자는 아래 해당 서류를 산업인력공단(HRD Korea) 인도네시아 EPS센터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인도네시아 내의 한인기업
- 인도네시아 취업을 원하는 한국인

*** 방법**

- 구인기업 : 구인알선신청서 작성, 제출
- 구직자 : 이력서(자유양식) 제출 및 월드잡(www.worldjob.or.kr) 회원가입, 이력서 등록

*** 절차**

- 구직자 중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를 선별하여 면접주선
- 면접 후 취업여부 결정

*** 기한**

- 연중 수시

*** 2016년도 해외취업 성공장려금 지원 사업 안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청년의 해외취업 및 정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해외취업 성공장려금’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국적을 소지한 자로 월드잡플러스 사전 구직등록 후 해외취업에 성공(2015년 10월 8일 이후 취업)한 만 34세 이하 (1981년 1월 2일 이후 출생)의 청년들 (선착순 2,500명)에게 해외취업 성공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니 월드잡플러스 (www.worldjob.or.kr)에 접속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EPS센터 : 021-7918-6012, 021-7918-6014

*** 신청서 및 이력서 보낼 곳**

- email : indonesia.eps@gmail.com



“Think the Unthinkable”
 다른 생각, 다른 행동, 다른 결과

PT. INNOMATE Think the Unthinkable!

A 14F, SME-Tower, Jl. Jend. Gatot Subroto Kav 94, South Jakarta, 12780 **E** pt.innomate@gmail.com
T +62. 21. 7919. 2006(Rep.) **I** 070. 4644. 2280(Dir.) **F** +62. 21. 7919. 2062
 Design Division **A** 4F Dongsung Bldg, 7-27, Chungdam-dong, Gangnam-gu, Seoul, 135-949, Korea

THE PROFESSIONAL INTERIOR COMPANY

인테리어 전문회사 이노메이트

All the designs are completed by specialists!
 이노메이트는 최고의 전문성으로 공간의 가치를 극대화하며, 고객의 감동으로 이어지는 최고의 공간을 디자인합니다.
 Office Design / Hospitality Design / Retail Space Design
 Residential Design / Cultural Space & Exhibition Design
 Transportation Space / Medical Space
 / Educational training facility / Overseas Projects

●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2967 2555
영사과	2967 2580
주아세안대한국대대표부	2967 2570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29921900, 29922100~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한국산업인력공단	527 2612
자카르타한국문화원	2903 5650
한국관광공사자카르타지사	5785-3030
한인니문화연구원	0816 1909 976
중소기업진흥공단	5292 1302

●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땅그랑한인회	5532 5555
반동한인회	022 2021566
발리한인회	0361 723 070
동부자바한인회	031 568 8690~1
수카부미한인회	0266 736 441
중부자바한인회	0298 522 587
메단한인회	0811 608 724
족자한인회	0274 376 741
바탐한인회	0778 392 01
보고르한인회	0251 7782 2959
찌까랑한인회	8990 9917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081511708882
국악사랑단체	0811 90 2003
즈빠라한인회	0291 598593
(총무 조영성 0813 90323355)	

● **한인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739 9025
벼룩시장	0815 1071 0023
한울	452 5655
여명	9955 5859

● **교육기관**

한국국제학교 (JKS)	844 4958-61
간디국제학교	690 9902
뉴질랜드국제학교 (NZIS)	7884 1226
싱가폴국제학교 (SIS)	7591 4414
(끌라빠가딩)	460 8888
영국국제학교 (BIS)	745 1670
자카르타국제학교 (JIS)	750 3640
북국제학교 (NJIS)	453 1001
호주국제학교 (AIS)	782 1141
일본학교 (JJS)	745 4130
네덜란드국제학교(NIS)	782 3929
독일국제학교(DIS)	537 8080
TAIPEI 국제학교(JITS)	452 3273
SPH (땅그랑)	546 0234
(찌까랑)	897 2786
RICS	7590 3342
헤리티지인터네셔널 (HIS)	08129712306
LYCEE Int. FRANCAIS	750 3062
JIPS	3004 2885
JIMS	744 4860
PAKISTANEMBASSYSCHOOL	3904137
ACG 국제학교	780 5636
ICSCIE	780 7313
익투스크리스천국제 학교	7590 8820/50

● **유치원**

KIDS Island	765 6588
Bambino (위자야)	720 3356
(빠뜨라 꾸닝안)	8378 3783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하나	844 5283
리틀램스쿨(자카르타)	750 0739
(끌라빠가딩)	471 8047
(땅그랑)	558 7227

마타아리 여행사
 소장 정연승
 T. 521 2212 H. 081 888 5353
 E. yunisarah@naver.com

terior
 Creative Human Space
 사무공간
 주거공간
 상업공간
 Darmawangsa Square Citywalk 3rd Floor Unit 62-63
 Jl. Darmawangsa VI & XI, Jakarta Selatan 12160
 Tel : 021-7278-0704 Fax : 021-7278-8330

가 가

한식왕

KANA 가나

RESTOLOUNGE



1. 복요리전문
2. 직수입한 삼합
3. 비즈니스컨셉 (삼계탕)
4. 돌잔치, 모임, 케이터링행사 대환영

Landmark Bld. Ground Floor
 Jl. Jend. Sudirman Kav. 1 Jakarta
 Phone : 2520077, 5710909
 HP : 0811 918 132

강남렌트카



0811-9409-632
0812-1097-631

안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골프장

BOGOR RAYA	0251)827 1888
CENKARENG	5591 1111
CILANGKAP	8459 5687
CIKAMPEK	0264)317 007
DAMAI INDAH [BSD]	537 0290
EMERALDA	875 9019
GADING RAYA	546 7668
GUNUNG GEULIS	0251)825 7500
HALIM 1	800 5762
HALIM 2	809 0729
IMPERIAL	546 0120
JABABEKA	893 6148
JAGORAWI	875 3810
KAPUK	588 2388
KARAWANG	0267)405 888
KEDATON	5930 0000
KEMAYORAN	654 1156
KRAKATAU	0254)372 030
LIDO	0251)822 1008
MATOA	787 0864
MODERN	552 9228
PALM HILL	8795 4307
PANGKALAN JATI	751 3326
PERMATA SENTUL	8795 1787
PONDOK CABE	740 5385
PONDOK INDAH	769 4906
RAINBOW HILL	0251)827 2111
RANCAMAYA	0251)824 2282
RAWAMANGUN	475 4732
ROVER SIDE	867 1533
ROYAL JAKARTA	8088 4488
SAWANGAN BARU	740 2194
SEDANA	0267)644 730
SENTUL HIGHLAND	8796 0266
TAKARA	599 1227

●골프교습

Easy Golf	801 2048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392 178
골프투어 자카르타	7013 8166
심스골프	570 3063
배준원골프교실	781 7679
PGA골프레슨(까라와찌)	5577 8936
골프투어&골프아카데미	0811 143 437

●골프샵

교민프로골프샵	5577 1006
따만사리골프샵	546 0838
레네세계골프	739 8312
한양(골라빠가딩)	450 4364
EFC Golf	725 0057
훈마플레이골프	344 2540
MFS골프	725 0057

Play Golf	722 9587
월드	552 7434
Bridgestone Golf	7279 8123
Love Green Halim	8778 2771~2
Love Green Cikarang	8990 7881

동문회

●중/고교

강경상고(민병무)	0818 879 149
경기고(구본찬)	780 0204
경남공고(이봉규)	0812 902 3800
경남중고(정낙현)	0813 8293 8557
경동고(강성원)	0812 8830 8566
경북고(노경인)	0815 1901 0575
경북고(이병수)	0816 181 3615
경성고(박영권)	0813 8805 1296
경신고(김진태)	7883 6372
경주중고(김홍규)	0818 141 635
구미 전자공고(이원규)	0815 1428 9329
계성고(최상록)	0811 249 038
광주고(선홍규)	0813 1536 5223
광주 사레시오중고	548 5112
광주 서중일고(이용하)	527 0150
광주 금호고	0815 1903 5802
남성중고(임석균)	515 9277
대구고(김현철)	0818 718 535
대구대륜고(노태진)	0816 835 185
대구 상고(김진우)	825 0581
대구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대광중고(이민규)	0816 880 018
대원외고(권기훈)	0877 7779 4668
대전고(윤내선)	426 2954
덕수상고(정천수)	0816 114 7364
동대문상고(곽기석)	867 3837
동래고(박형남)	0815 1906 0877
동성고(홍창형)	0812 102 2670
동아고(여병철)	0811 187 554
동인고(차명훈)	0815 950 0461
마상고(김만수)	0811 122 5239
목포중고(김용진)	568 0517
배재학당(이성수)	0815 1428 0295
배정고(김상훈)	0817 659 9473
보성고(김유호)	5940 1282
보성교우회(박지배)	0811 976 537
부산기고(채윤규)	026 751 2483
부산 동고(이동훈)	0811 190 7967
부산상고(박갑수)	0812 952 5404
부산 중앙고(송명석)	0811 834 412
부산고(조명국)	0811 1046255
부산 외고(선진세)	0813 8536 8434
서울고(신균)	0811 157 450
서울대신고(서영석)	0813 1139 7145
선린상고(김기석)	0817 648 9321

성남고(성기채)	0815 1070 2424
성동고(구본욱)	025 161 1466
성원고(강변창)	0811 891 458
수원 유신고(안성욱)	0813 1626 7777
순천 중고(김정욱)	0815 1932 9650
송문고(김영언)	0816 937 269
신일고(금민철)	0816 864 677
심인고(김종필)	0815 1305 4150
안양공고(조한영)	0812 859 8483
양정고(이종환)	0815 1033 1001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등포고(정하승)	0811 140 334
오산고(조동혁)	0815 7432 7769
용산고(박승래)	0813 1842 1269
유한공고(이선용)	0812 071 210
인천중/제물포고(한승도)	0818 912 698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전주고(남택열)	0811 877 108
정석항공고(백승엽)	0811 903 144
중동고(최무중)	0811 8532 0354
중앙고(정재익)	0811 910 013
진주 대아고(김영진)	5522 0041
청주고(조영선)	0815 1901 4477
충남고(이수현)	0811 175 126
한성고(박창화)	0816 780 751
해광고(서동희)	0813 9839 9286
휘문고(맹중호)	0818 973 986

• 대학교

강원대(송영석)	0812 1326 5977
건국대(조선용)	0811 910 6707
경기대(인기상)	739 7625
경북대(김규식)	0816 182 3748
경희대(양승민)	0811 164 367
계명대(백성영)	871 2371
고려대(이광수)	0813 8026 1353
공군사관후보생(김기정)	08179187100
부경대(이제원)	0812 968 9797
동국대(염정운)	0817 681 8599
동아대(서종균)	0811 850 212
목포해양대(이종재)	08111 975 205
부산대(유제상)	0811 841 510
부산외대(이동훈)	0816 781 564
서강대(이철우)	08121177399
서울대(정무웅)	797 5959
성균관대(김진태)	0818 953 949
숙명여대(서영자)	0815 1324 2799
숭실대(김학수)	0811 879 701
아주대(서보상)	0815 1902 4220
연세대(금민철)	0816 864 677
영남대(김상수)	0812 103 8707
영산대(최재혁)	590 0401
울산대(최재호)	723 0917



"아침을 깨우는 신문"

자카르타경제신문

아침 Pagi .co.id

자카르타경제신문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세요.
자카르타경제신문의 온라인 신문이 드디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제 지면뿐만 아니라 모바일과 인터넷을 통해 더 빠르고 생생한 인도네시아 소식과 한인동포 소식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화여대(김미송)	0811 122 0566
인하대(이기홍)	0816 812 507
전남대(최병욱)	0816 188 1233
전북대(최성호)	0815 7232 3689
중앙대(손동근)	0811 844 247
충남대(노제익)	452 6968
충북대(최병인)	0817 778 857
한국외대(신성철)	0818 936 943
한국해양대(이승준)	0811 190 7718
한양대(임영석)	0811 944 338
ROTC(인니저희사무국장한규성)	0818 890 571

• 은행

수출입은행	525 7261
외환은행	574 1030
우리은행	2996 1915
하나은행	522 0222~3

• 종교 단체

<기독교>	
꿈이있는교회	548 3044
늘푸른교회	766 9191
동부교회	4587 7317
연합교회	7279 5625
예사랑침례교회	4176 5140
소망교회	739 6487
순복음교회	739 2373
안디옥교회	751 5525
열린교회	844 5537
위자야한인교회	7279 3145
자카르타사랑의교회	450 7324
주님의교회	831 3843
중앙감리교회	533 2749
찌까랑임마누엘교회	8990 3133
참빛교회	718 3535
한마음교회	739 5035
한인성요셉성당	7884 3782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돌아봅니다.
고객은 나의 거울이요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한분 한분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나를 가다듬고 精과 誠과 禮를 다해 찾아뵙겠습니다.

고객을 위해 빠르게-

DOOWANG Consulting
Since 1994

Graha Surveyor Indonesia, 19th Floor Suite 1901
Jl. Jend. Gatot Subroto Kav. 56, Jakarta 12950
Tel. (62-21) 2941-0780 (hunting) | Fax. (62-21) 2941-0775
Mobile: 0811-953607 | www.doowang.net
E-mail: lsw@doowang.co.id | leesowang@gmail.com

항공권 · 호텔 · 관광 · 비자

로데미와 함께하면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RODEM TOUR

Tel: (021) 4587 8833 Fax: (021) 293 64168
HP: 0812 967 8131
E: rodemtours@naver.com
rodem_tours@cbn.net.id



Law Firm
INDOYANG & PARTNERS
법무법인 인도양

강력한 변호사 팀 / 확실한 법적 해결

김 중성 (대표 Partner) : UI대 법대졸, 법대 대학원
 HP : 0815-8690-3000 Email : cskim@indoyanglaw.com 또는 cskim.indoyanglaw@gmail.com
 Korea Center Building, Suite 605 Jl. Jend.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12950, Indonesia Telp : 62-21-5273077 / 8 Fax : 62-21-5207212

(찌까랑 공소) 8911 7547
 불교>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765 6036
 (동부자바포교원) 0818 333 491
 법연종 법연원 720 8607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이슬람>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가구

쥬지언 퍼니처 766 0364
 아이니갤러리 581 4690

●건강식품/건강원

COCOON(일동제약인니지부) 520 7662
 경동건강원 7028 4262
 고려건강원 081 690 3990
 부아메라 0816 1854 58
 한국건강원 5579 6411
 황소건강원 5576 7628
 진영삼봉나와 8234 565
 솔진생코리아 7278 8287
 클로렐라 470 4280
 이룸황성주생식 5296 1522

●국제전화 서비스

글로벌링 725 1606
 넥스텔링크 525 3187
 데이콤 720 7551
 킹폰 574 0888
 현대 텔레콤 5579 1226
 Hallo Phone 5290 0233

●건설 / 설비 전기

DASOM indonesia 2940 3042/5
 건설 중장비 렌탈 08111 43437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1 846 174
 난 이야기 0812 913 1355
 에셀꽃집 0816 733 810

●기타

바틱하우스 0816 770 143
 마음수련 722 1600
 바람소주 0811 85 3156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Good Deal Gallery 573 6233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골라빠가딩) 9773 4780
 IDOL가라오케(땅그랑) 021 546 0840

●렌트카/기사클럽

강남렌트카 081 2109 7631
 서울렌트카 6870 9335
 우리렌트카 081 119 3069
 한성렌트카 889 0471
 짱구기사클럽 7279 8233
 링크렌트카 9583 1000

●미용실/피부관리

갤러리 J 725 2856
 국제이용원 739 6129
 뷰티 # 520 4428
 스칼렛미용실, 피부관리실 547 5867
 아미란스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퀸덤 7279 2067~8
 Hair Perm 7280 1404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자르헤어 7279 6998

Salon & Beauty Shop 7278 6969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법무법인 P.Y.L 527 2422
 P.A.K. 변호사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K LAW 변호사 사무소 5785 3271
 법무법인 인도양 527 3077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밀레니움 7082 0056
 리츠부동산 6896 7249
 대한부동산 0813 1447 6593

●방송사

K-TV 525 2922
 OKTN(KBS World) 797 6151
 KABLE VISION 527 8811
 INDOVISION 581 9988

●병원

관준한의원 722 7745
 뉴월드메디칼 7279 3809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서울메디칼 크리닉 799 1333
 신농서한방병원 7278 0563
 아름다운 병원 720 7628
 향림당 한방병원 720 7727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 (땅그랑) 546 0055
 RS. Siloam (찌까랑) 8990 1911
 Matahari Klinik 722 6391
 Dokter Korea 0815 8539 7777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까시) 821 8705
 무궁화슈퍼 722 2214
 무궁화(땅그랑) 558 2214
 무궁화(골라빠가딩) 453 3624
 무궁화(찌까랑) 7075 2214
 무궁화(다르마왕사) 723 3214
 서울마트(가라와찌) 546 0844
 서울슈퍼(골라빠가딩) 450 4364
 우리슈퍼(버까시)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2016년 한인 문예총

<회장단&집행부>

사공경 회장	0816 1909 976
강희중 고문	0816 798 221
이일하 부회장/기획/ 음협 회장	0811 9103 108
신돈철 부회장/전시/ 미협회장	0878 5480 4815
박형동 부회장/공연/ 한바패회장	0811 149 586
이수진 부회장겸 사무국장/ 헤리티지회장	0816 1300 210
채영애 감사/아르떼 여성합창단 단장	0816 745 384
허민경 사무차장/ 스트링 오케스트라 단장	0812 1316 2064
<협력단체장>	
서예협회장 : 양승식	0811 111 363
루시플라워 회장 : 최정순	0811 834 026
미술협회 회장 : 신돈철	0878 5480 4815

문인협회 회장 : 서미숙	0812 8178 050
한바패 회장 : 박형동	0811 149 586
어린이합창단 지휘자 : 안영수	0811 9005 639
색소폰동호회 회장 : 박의태	0811 876 547
헤리티지(코리안) 회장 : 이수진	0816 1300 210
국악사랑 회장 : 장방식	0811 902 003
월화차 회장 : 이춘순	0878 8333 3359
음악협회 회장 : 이일하	0811 9103 108
아버지양상블단장 : 변영극	0815 9101 898
아르떼 여성합창단장 : 채영애	0816 745 384
스트링 오케스트라 단장 : 허민경	0812 1316 2064
<촉탁전문위원>	
* 안선근 : 현지단체교류	0816 883 223
* 최석일 : 문화컨텐츠	0818 901 609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G-마트(찌부부르)	8459 9858
K-마트	725 2122
위자야마트	726 9049

●식당

하나	0254-393 2146
가나	558 2214
가야성	725 7373
가호	5289 7044
강남	0812 2323 5119
강남스타일	2952 8443
고주몽	7279 6709
고주몽	8984 1000
김군 고기고기	726 4999
김삿갓	722 2230
대가	8459 2871
대감집	720 7530
대화	720 6091
락	5793 9211
마포	7279 2479
맛집칼국수	0821 1096 3483
명가면옥	0254-849 3571
면의전설	521 0230
명가면옥	2751 0800
미가	0818 85 8026
미스터 박	5140 1142
버까시 서울	8895 7604
베다니1호점	9318 0458
베이징	0254-837 0242
보신명가	789 0220
보신명가	0254-848 4111
본가	739 6229
삼원가든	2988 9505
설악추어탕	722 1852

소래포구	8990 5051
씨티서울	5289 7506
아랑22	5140 1245
아리정	739 6549
우장군	725 6181
유미	720 7464
청기와	726 1924
청담가든	0815 7342 5802
청해수산	527 8721
취연	725 1276
토박	725 1135
하누	725 5042
한강	7278 7802
한민족	725 2688
한솔	5290 3417
이가네	6669 5500
한옥	0254-385 588
강산	2452 0569
깜닭	4584 5837
다미	4585 0040
대장금	0816 885 956
마포갈매기	0812 9313 9503
명가면옥	8990 4552
미스터 사시미	4585 3484
미추홀	6583 1472
서울	4585 4454
설악추어탕	2937 5435
송가네삼계탕	4585 4422
야래향	4584 8476
황금밥상	4585 3402
감미옥	5579 4612
강나루	5576 8222
강촌	5579 3681
꼬꼬따리아	0254-39 4255
대가야	547 5511
명가면옥	552 2745
산들	5579 5821

상하이	5573 5550
서울일식	546 0840
아리수	0254-781 0059
알리사	0254-60 1430
오리랑장어랑	5577 6457
우리들	552 4047
조선민물장어	5573 3308
종가레스토랑	551 3273
청기와	0858 1377 3388
체어맨	5577 8585
태능갈비	7055 0888
테라스 가든	8493 9321
한마당	5577 6770

●신문

한국신문 종합대리점	520 7207
데일리코리아	725 7447
조선일보	5290 7388
중앙일보	7590 8308



ICHTHUS SCHOOL
A Christian School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PRIMARY | SECONDARY | A LEVEL



Contact :
 South Campus: Jakarta Selatan
 T: +6221 7590 8820
 West Campus: Jakarta Barat
 T: +6221 581 2228


www.ichthusschool.com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한국일보	769	1081
한인포스트	4586	9199
일요신문	452	5655
타임인도네시아	5028	4996
JAKARTA POST	530	0476
자카르타경제일보	5290	0117

●안경원

눈사랑안경원	723	5360
시티안경원	726	5009

●여행사

나래여행	5296	0749
하나족자트래블	0274	887 488
굿데이투어	4586	0598
그린관광	798	3322
Red Cap	5797	3397
Rodem Tour	4587	8833
마타아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ro	603	9274 1780
솔로몬투어	0813	1934 1000
싱가폴투어(비자)	2903	6647~50
스카이투어	391	1381
우리투어	794	0422
153 TOUR	5720	153
코리아트래블	230	3116
코인관광	720	7230
하나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532	7970
Inko Batam(바탐)	0778	462 500
사랑투어	3192	4449

●인니어통역/번역

Mrs. Lee	021	743 2687
CITRA	781	7771

●인터넷

HANASTAR INTERNET	2270	8282
S-Net	7080	7886

●인테리어

H2 Stuff	4586	7860
KJ건축 인테리어	0821	2564 1777
	7590	6767
Living A&I	7278	0704
로만인테리어	720	4851
아이니인테리어	0812	1928 5578
INNOMATE	7919	2006

●운송 해운 이삿짐

소명통관	4585	9283
센다이 이주화물	8770	6361
아네카 트란스	520	4181
트란스 우따마	829	6218
프라임 운송 인도네시아	5591	5770
페나스콧 로지스틱스	2902	3838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INDO EXPRESS	5296	0024
PANTOS LOGISTIC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7884	1550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2937	5670
WIKASA	8379	1935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	-----	------

●증권/보험

삼성화재	021	806 22000
우리코린도증권	797	6210
클레몽종합금융	797	6363
메리츠코린도보험	797	6242
키움증권	526	1326
KDB 대우증권	515	1140
LIG 손해보험	391	3101

●컨설팅

럭키비자	0813	1133 2122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누비라컨설팅(리뽀찌까랑)	8990	0088
두왕컨설팅	520	7153

새천년컨설팅	5290	0040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 21	799	6182
퓨릭컨설팅	5596	3213
한생컨설팅	5290	0670
KMAQA (ISO인증원)	573	1576

●컴퓨터, IT

대인정보시스템	230	5533
레드망고(PC방)	4584	4186
리콤컴퓨터	725	1606
컴퓨터 원	5576	5228
지텍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인도웹 www.indoweb.org	0811	8889609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하숙

경복궁하숙(리뽀찌까랑)	0813	14157581
가딩 홈스테이	9661	5877
간다리아게스트하우스	0858	14422900
갈릴리 게스트하우스	0858	13413222
갤러리 게스트하우스	0813	15149978
교민 하숙	0816	163 5558
나인비즈니스 하숙	9940	5005
동지 하숙	3608	9316
리뽀찌까랑 하숙	0812	1066 7757
레저 게스트하우스	0811	143 437
모나리자	8990	9570
모이하숙	0878	8515 1653
사랑채 게스트하우스	0813	8059 1625
세명 하숙	0852	1757 5525
세노파티코리안 하우스	0821	1336 1111
소망 하숙	0813	1724 9911
쉽터 하숙	726	8775
시내중심게스트하우스	0815	17803680
이모네 하숙	0818	964 946
인다 게스트하우스	0822	6074 8228
엘지 게스트하우스	0812	100 7135
엘림 게스트하우스	0815	181 3122
위자야게스트하우스	0815	1024 8888
자카르타 게스트하우스	0817	127 887
풀하우스	0818	901 609
한발	830	9990
한올타리	739	5841
한아름 게스트하우스	723	8302
현대 하숙	0818	795 787
한마음 게스트하우스	0813	8822 7783

BSD등불 하숙 0852 1985 1523
 힐링 게스트하우스 0821 1427 5415

● 학원/교육업

대교인도네시아 5292 0911
 마인드케어학습클리닉 546 4531
 뮤직아카데미 08119103108
 박학천논술 4586 7844
 뿐독인다아카데미 7590 5773
 에세드라아트스쿨(리뽀까라와찌) 546 4531
 예원 720 8783
 케이에듀인 한국어/유학원 2942 7062
 종로학원 7883 5202
 토마토미술 723 3699
 0817 9876 950
 피카소어린이미술학원 081398922222
 하이스트학원 720 2022
 해동검도 522 7204
 해보다외국어학원 0888 843 0415

● 항공

대한항공 (시내) 521 2180
 (공항) 550 23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나 항공 (시내) 572 1381~3
 (공항지점) 5591 3229
 싱가포르 항공 570 4411

● 호텔

그랜드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물리아 574 7777
 상그릴라 570 7440
 싸이드자야 570 4444
 하얏트 390 1234
 크라운플라자 526 8833
 솔탄 573 8011
 GSI Hotel & Resort 0858 8248 3211
 자바 팔레스 2928 1111

● 환전

굿-머니 5793 9990
 그린환전소 0815 1423 0114
 플라빠가징 453 1166
 사강머니체인저 5290 0233
 워나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신암 797 6105
 참피온머니체인저 458 51158
 환전 712 8556

S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20여년간 진주양식 직영을 바탕으로
 최상의품질을 정직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아시아 진주가 되겠습니다.

◆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진주 전 품목 수출 및 도매(한국 배달 가능)
 ◆ 정품 다이아(GIA) 판매 - 90% 환매보장 ◆ 금 매입·매각 가능
 ◆ 모든 셋팅물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가공 가능 ◆ 결혼 예물세트(다이아, 진주)

갤러리(위자아센터 옆) 본 점(수출/무역)
 |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1 No.28 | HP. 0816-873-176
 |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ak-Sel | HP. 0816-1390-333
 | Tel. 021-7278-8327 HP. 0888-110-2022 | E-mail. 3spearl@hanmail.net



▶▶▶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재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

최 병우	0811-956-227	회장
강 희중	0816-798-221	검도협회장
곽 봉규	0815-410-4167	탁구협회장
김 송정	0816-716-293	볼링협회장
김 태화	0811-188-2938	스쿼시협회장
방 진학	0811-198-282	태권도협회장
배 응식	0811-965-2775	용무도협회장
이 광희	0811-998-186	축구협회장
정 성원	0817-785-348	테니스협회장
한 현봉	0811-111-5800	골프협회장
이 기홍	0819-812-507	사무총장
성기채	0815-1070-2424	사무차장

발 리 (지역번호 0361)

●한인단체		
재발리한인회	0812 3793 9452	
●항공		
대한항공(KAL)	768 377	
●종교단체		
한인교회	462 222	
●슈퍼마켓		
한국슈퍼마켓	281 929	
●여행사		
B.J.C TOUR	284 365	
BALI INDA TOUR	286 905	
BALI DAMAI TOUR	764 864	
BALI HARMONY TOUR(A)	744 1815	
BALI STAR TOUR	868 8287	
BALI TAP TOUR	860 4977	
MANGOCAKE	745 4229	
FIN DONGHWA TOUR	847 1966	
DREMLAND TOUR	745 1961	
DARMA BALI TOUR	848 0030	
KOURUS TOUR	744 7200	
M. TOUR MAIL	725 800	
NUSA TOUR	285 122	
ITOUR	261 105	
MATAHARI KOREAN TOUR	703 479	
MARIN TOUR	224 010	
PDTOUR	763 845	
PENJOR TOUR	727 800	
P.B.B TOUR	288 999	
U2 Bali Holiday TOUR	710 731	
T.N.B TOUR	808 9000	
UNION TOUR	745 4419	
SUDINA TOUR	744 2121	
SPIRIT TOUR	780 2340	
KOREA TRAVER	756 899	
V.I.P. 여행사	762 090	
WORLD RESORT CENTER	778 218	
WEDDING TOUR	745 3650	
●식당		
그릴하우스	(0361) 710 374	
꼬끼레스토랑	770 256	
대장금(SIMPANG SIUR)	889 0870	
대장금(SANUR)	918 1888	
라리스	727 405	
부가	805 1212	
서울가든(부두굴)	(0362) 342 9220	
한일관	727 250	
인터넷서날라온지	759 368	

●서비스업

- 빌라, 호텔	
BEVERLY HILLS VILLA	848 1800
BALI DIARY HOTEL	499 282
DREAM LAND VILLA	708 199
OCEAN BLUE BALI VILLA	776 700
MAN&WOMAN VILLA	847 6521
LAVENDER HOTEL	752 961
VILLA DOWNTOWN	736 464
VILLA NAMASTE	755 755
AISIS VILLA	862 8777

●기타서비스업

I.N.L	720 999
INKO CLUB	722 431
HALLO BALI	723 593
SIMPANG SIUR	761 313
AVENUE	762 327
AISIS (NUSADUA)	770 256
AISIS (SANUR)	287 257
COLAGEN BUTY SHOP	885 1770
CLUBBER	766 340
BALI FINE	852 8881
POLO SHOP(AIRPORT)	759 368
BALI TEGEHE AGUNG	298 643
CLEAN & GREEN	289 070
SUN JEWELLERY	761 537
SINAR MUTIARA BALI	462 061
BALI DEWATA	285 501
CHIPPENDALE FURNITURE	812 570
SAMMA	815 310
BALI PROPERTY CONSULTING	264 086
SHINY HAIRSHOP	766 304
카리스(특피전문백)	0811 998 1637

반둥 (지역번호 022)

반둥 아름다운교회	201 3184
	0813 2233 0119
반둥 반석교회	201 5022
한국인교회	201 4052

●식당

뉴캐슬식당	201 5007~8
명가레스토랑	200 7363
코리아하우스	203 1626
한국관	204 3069

●서비스업

뉴캐슬사우나	201 5007~8
반둥렌트카	0858-1111-4000
반둥한인부동산	0858-1111-4000
반둥컴퓨터	0821-2222-6000



긴급전화번호

경찰	POLICE (Polisi)	112
범죄 및 도난 신고		110
소방서 (화재신고)	FIRE BRIGADE (Dinas kebakaran)	113
응급차	AMBULANCE (Ambulan)	118 119
민간구급차 서비스	PRIVATE AMBULANCE SERVICES	(021)7506001 =International SOS (24시간대기)

■전화번호 안내

시내.....	108
Directory Service(City)	
시 외.....	105,100
Directory Service(Suburbs)	
국제전화.....	001,008

■교통기관

수카르노 하타공항안내.....	021)5505307/8/9
Airport Information	550 5179
택시예약(블루버드클럽).....	021)7917 1234
(24시간 접수)	
고속도로 정보.....	801
Toll Road	
교통사고.....	118, 021)527 5090
Traffic Accidents	
열차시간안내.....	121
Station Gambir	
Station Kota.....	021)692 8515

■재인도네시아 한국인관련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021)2967 2555
영사과.....	021)2967 2580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021)521 2515
한인회 24시간 비상연락....	0812 1960 308

■항공사 안내

대한항공(시내).....	021)521 2180
(공항).....	021)550 2389
가루다(Call Center).....	021)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 항공(시내).....	021)5721 381~3
(공항).....	021)5591 32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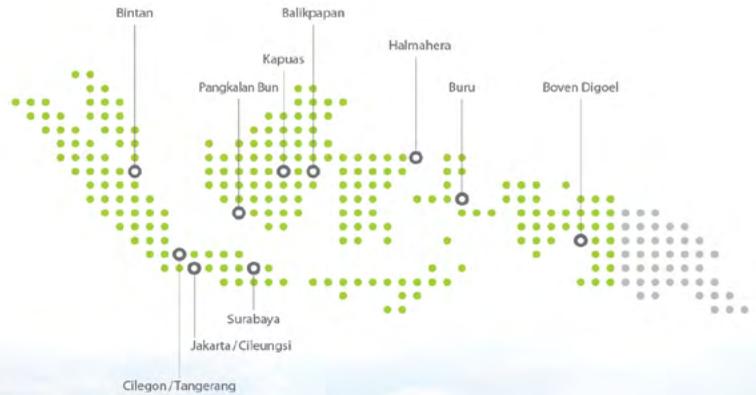
■우편

중앙자카르타 우체국.....	021)384 4188
-----------------	--------------

■각종 고장 문의

전기고장 문의.....	123
전화고장 문의.....	147
수도고장 문의.....	021)57986555

KORINDO Plants the Green



인류의 지속가능성, 녹색경영에서 해법을 찾다!

코린도의 주력사업인 천연림경영, 조림, 팜오일, 목가공사업 등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친환경사업을 통해 지구와 인류를 위한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 Forestry Management
- Timber Plantation
- Oil Palm Plantation
- Rubber Plantation
- Plywood
- Plant
- Special Vehicle
- Battery Separator
- Coal & Limestone Mining
- Finance
- Total Logistics
- Shipping Division
- Engineering & Construction
- International Business Div.
- Real Estate Management
- Rest area & Gas station
- SG Consulting
- Wind Tower
- Newsprint & Printing / Writing Paper
- Wood Chip/Veneer/ Sawn Timber/ Wood Pellet

“Think the Unthinkable”

다른 생각, 다른 행동, 다른 결과

이노메이트는 차별화된 컨셉과 디자인 매니지먼트를 통해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글로벌 네트워크 디자인 회사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성공적인 디자인 프로젝트 전략과 시공방법을 제시하고, 가치를 극대화 하는 공간을 디자인합니다.

**THE
PROFESSIONAL
INTERIOR COMPANY**



Office Design / Hospitality Design / Retail Space Design /
Residential Design / Cultural Space & Exhibition Design /
Transportation Space / Medical Space /
Educational training facility / Overseas Projects



KIDECO,
the most reliable coal supplier
and
friend moving towards
the future together

